2주차 – 경제학: 경제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

1. **경제학의 대상과 분류**

경제학의 연구대상

경제학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경제 행위를 선택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 경제주체 – 경제행위의 예
  + 소비자 – 노동을 공급,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 자본을 공급
  + 생산자 – 조동을 수요, 자본을 수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 정부 – 조세를 부과,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공급
* 경제주체들이 결정한 경제행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킴. 따라서 경제학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경제 전체적 상황을 변화시키는가에도 관심

경제순환모형도

경제주체들 간에 실물과 자금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도식화한 것

* 가계, 기업 및 정부는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며 그 결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상황이 결정
* 상품시장의 종류
  + 재화시장
  + 서비스시장
* 생산요소시장
  + 노동시장
  + 자본시장
  + 토지시장

자원의 희소성과 경제행위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 결정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가 언제나 발생한다는 것

* 경제적 자원: 현금이나 물질적 자원뿐 아니라 시간, 기술, 아이디어 등 무형의 자원까지도 포함
* 자원의 희소성: 원하는 것보다 가용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
  + 소비자 – 예산과 시간의 희소성에 직면
  + 생산자 – 가용한 생산요소, 기술 등의 희소성에 직면
  + 정부 – 가용한 정부예산 규모의 싀소성에 직면
* 따라서 경제학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제약하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최적의 선택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경제학의 분류 1분석의 단위: 미시경제학 vs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각 경제주체들의 개별적인 경제행윙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

* Ex> 개별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각각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 시장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가?
* 주요 관심변수: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업 및 정부의 행위 등 개별 경제주체 단위로 정의되는 변수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국가 정체 전반의 움직임을 분석

* Ex>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모두 합산한 국가경제 전체의 총량 변수는 어떻게 움직이며 이 변수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주요 관심변수: 국내 총생산, 물가, 실업, 수출, 수입 등 국가경제 전체 단위로 정의되는 변수

경제학의 분류 2분석의 내용: 실증적 분석 vs 규범적 분석

실증적 분석(positive analysis): 경제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 어떤 경제현상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과학적 분석 (경제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 경제학 이론의 대부분을 차지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 어떤 경제적 상황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동반한 분석
*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업의 투자활동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가?

경제학의 분류 3과학적 단계: 이론경제학 vs 응용경제학

이론경제학(economic theories): 경제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제호명을 구축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분야

* Rud제모형은 복잡한 현실세계를 단순화해 묘사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련의 가정들을 설정 => 바람직한 경제모형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함.
  + Ex> 소비자는 두 가지 재화만 소비: 비현실적?
* 이 가정들 하에서 이론경제학은 경제모형 내에 포함된 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 => 바람직한 경제모형은 논리적 internal consistency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논리적 설명의 결과로서 경제적 함의를 가진 명제들을 도출 => 바람직한 경제모형의 명제들을 경제현상에 대한 현실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2주차 – 경제학: 경제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

1. 경제학의 대상과 분류

경제학의 연구대상

경제학은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경제 행위를 선택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 경제주체 – 경제행위의 예
  + 소비자 – 노동을 공급,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 자본을 공급
  + 생산자 – 조동을 수요, 자본을 수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
  + 정부 – 조세를 부과, 재화와 서비스를 수요/공급
* 경제주체들이 결정한 경제행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킴. 따라서 경제학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경제 전체적 상황을 변화시키는가에도 관심

경제순환모형도

경제주체들 간에 실물과 자금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도식화한 것

* 가계, 기업 및 정부는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상호 작용하며 그 결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상황이 결정
* 상품시장의 종류
  + 재화시장
  + 서비스시장
* 생산요소시장
  + 노동시장
  + 자본시장
  + 토지시장

자원의 희소성과 경제행위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 결정과정에서 경제적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가 언제나 발생한다는 것

* 경제적 자원: 현금이나 물질적 자원뿐 아니라 시간, 기술, 아이디어 등 무형의 자원까지도 포함
* 자원의 희소성: 원하는 것보다 가용한 자원이 부족한 상태
  +  소비자 – 예산과 시간의 희소성에 직면
  +  생산자 – 가용한 생산요소, 기술 등의 희소성에 직면
  +  정부 – 가용한 정부예산 규모의 싀소성에 직면
* 따라서 경제학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제약하에서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최적의 선택을 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경제학의 분류 1분석의 단위: 미시경제학 vs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microeconomics): 각 경제주체들의 개별적인 경제행윙와 그들의 상호작용을 분석

* Ex> 개별 소비자들과 기업들은 각각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방식으로 서로 영향을 미쳐 시장에서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가?
* 주요 관심변수: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업 및 정부의 행위 등 개별 경제주체 단위로 정의되는 변수

거시경제학(macroeconomics): 국가 정체 전반의 움직임을 분석

* Ex>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모두 합산한 국가경제 전체의 총량 변수는 어떻게 움직이며 이 변수들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 주요 관심변수: 국내 총생산, 물가, 실업, 수출, 수입 등 국가경제 전체 단위로 정의되는 변수

경제학의 분류 2분석의 내용: 실증적 분석 vs 규범적 분석

실증적 분석(positive analysis): 경제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 어떤 경제현상의 정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과학적 분석 (경제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 경제학 이론의 대부분을 차지

규범적 분석(normative analysis):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 어떤 경제적 상황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동반한 분석
*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하는가 아니면 기업의 투자활동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가?

경제학의 분류 3과학적 단계: 이론경제학 vs 응용경제학

이론경제학(economic theories): 경제현상의 일반적인 법칙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제호명을 구축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분야

* 경제모형은 복잡한 현실세계를 단순화해 묘사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련의 가정들을 설정 => 바람직한 경제모형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함.
  +  Ex> 소비자는 두 가지 재화만 소비: 비현실적?
* 이 가정들 하에서 이론경제학은 경제모형 내에 포함된 경제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 => 바람직한 경제모형은 논리적 internal consistency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논리적 설명의 결과로서 경제적 함의를 가진 명제들을 도출 => 바람직한 경제모형의 명제들을 경제현상에 대한 현실 설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경제학의 분류 3과학적 단계: 이론경제학 vs 응용경제학

응용경제학(empirical economics): 이론경제학에서 도출된 명제들을 가설로 설정하고 실제 데이터가 이 가설을 지지하는지 확인

* 법인세가 인하되면 실제로 기업들이 투자활동을 증가시키는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일자리가 줄어드는가? 등은 매우 중요한 응용경제학적 분석 대상

이론경제학과 응용경제학은 보완적 혹은 순환적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를 통해 경제학의 과학적 체계가 완성

* 응용경제학에서의 가설검정은 이론경제학에서 제시된 명제들이 현실설명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
* 가설검정 통과 => 그 이론경제모형은 바람직

가설검정 기각 => 이론경제모형은 수정되거나 새로운 모형을 개발

1. **경제학적 사고의 출발점**

경제학의 기본 가정: 합리성

경제학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경제행위를 한다고 가정

* 합리성이란 주어진 목표를 최적화 된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최적화된 방법으로 선택한 경제행위의 결과는 그보다 우월한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효율성을 달성한 경제행위

* 효율성이란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가능한 최대한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

결국 경제학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합리성을 가정함으로써 이들의 모든 경제행위들이 효율성을 달성하게 된다는 사고로부터 출발

합리성이라는 가정의 적정성

실증경제학적 의문: 경제주체들은 정말로 언제나 합리적인가?

* 이 가정은 많은 경우의 경제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가정이나 항상 맞는 가정은 아님.
* 최근에 개발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경제주체들이 심리학적인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의 비합리성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경제이론을 제시

규범경제학적 의문: 합리적 혹은 효율적인 결과가 항상 바람직한가?

* 보다 능력이 많은 경제주체가 보다 많은 경제적 자운을 차지하는 것은 효율적인 결과일 수 있으나, 사회전체적인 형평성 측면에서는 q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행위 결정방식은 현실경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분석적 틀을 제공하고 있음.

합리적 선택의 방법: 1목표와 제약에 대한 명확한 파악

어떠한 목표를 설정할 것이며 이를 달성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제약요인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의 첫 단계

* 해외여행의 목표: 가능하면 많은 나라를 가능하면 고급호텔에서 여행
* 해외여행의 제약: 가용한 예산

이러한 제약요인은 결국 자원의 희소성에 의해 발생

* 소비자: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제약하에 어떻게 소비로 인한 행복을 극대화할 것인가?
* 생산자: 투입요소와 기술의 희소성이라는 제약 하에 어떻게 생산으로 인한 이윤을 극대화할 것인가?

합리적 선택의 방법: 2기회비용을 고려

상충관계: 하나의 선택을 하려면 다른 선택을 반드시 포기하여야 할 때 두 선택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함.

* 이러한 상충관계는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
* 해외여행의 예에서 만일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최고급 호텔에 묵으며 여행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산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여행 국가의 수를 늘리려면 호텔의 수준을 낮추어야 하고 호텔의 수준을 높이려면 여행 국가의 수를 줄여야 하는 상충관계가 발생
* 상충관계의 다른 예:
  + 소비자들은 예산제약으로 인해 한 재화의 소비를 늘리려면 다른 재화의 소비를 줄여야 함.
  + 생산자들은 기술과 가용 투입요소의 제약으로 인해 한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여야 함

이러한 상충관계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함.

* 어떤 선택을 하였을 때의 기회비용은 그 선택에 의한 명시적 비용 뿐 아니라 그 선택을 함에 따라 포기해야하는 다른 대안들이 주는 가치들 중 그 가치가 가장 큰 대안의 가치인 암묵적 비용을 포함

1시간 동안 무료 온라인 게임을 하였을 때의 비용은 정말로 공짜인가?

* 다른 대안들 1. 주어진 1시간 동안 강의를 수강 => 1의 가치 : 100

2. 주어진 1시간 동안 영화를 감상 => 2의 가치 : 50

* 무료 온라인 게임의 기회비용은 100이다.

기회비용 분석의 예

친구인 A와 B는 무급휴가를 내고 1천만원의 비용으로 1년간의 세계 배낭여행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선택할 경우 이들이 각각 느끼는 행복감은 4천만원으로 동일. 그러나 A의 연봉은 7천만원이고 B의 연봉은 3천만원

* A, B 모두 여행을 통한 4천만원의 행복이 배낭여행의 명시적 비용인 1천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여행을 할 것인가?

텍스트, 라인, 스크린샷,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합리적 선택의 방법: 3한계적 분석

경제학에서 ‘한계적(marginal)’이라는 것은 ‘추가적(additional)’ 혹은 ‘맨 마지막의(at the end)’라는 의미

경제주체가 어떠한 행동을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그 한계적 행동이 가져오는 한계적 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적 비용(marginal cost)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 한계편익 > 한계비용 => 그 한계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 until 한계편인 = 한계비용
* 한계편익 < 한계비용 => 그 한계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합리적 until 한계편인 = 한계비용

이러한 한계적 분석에 의한 결정방식은 결국 경제주체의 순편의 (= 편익 – 비용)을 극대화시키게 됨

5만원 짜리 뷔페레스토랑에 입장한 소비자: ‘몇 접시를 먹을까?’의 선택

* 5만원의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한 없이 음식을 먹는 것이 합리적인가?
* 마지막 한 접시를 더 먹었을 때 느끼는 한계편익과 그에 따른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선택
* 처음에는 한계비용이 한계편의보다 높겠지만 조만간 한계편익은 점차 감소하고 한계비용은 점차 증가하므로 한계편익이 한계비용과 동일할 때까지 먹는 것이 합리적 결정

이 예에서 처음에 지불한 5만원은 이미 지불해 버린 비용이라는 의미에서 매물비용이라 하며, 몇 접시의 음식을 먹을 것인가라는 선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유의

텍스트, 번호, 라인, 영수증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한게적 분석의 예

몇층짜리 건물을 지을 것 인가의 문제를 고려

* 건물로부터의 총편익 계산
* 건축으로부터의 총비용 계산
* 이로부터 순편익 (= 편익 – 비용)을 게산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

순편익의 극대값은 336이므로 8층 건물을 짓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편인과 총비용 대신 한계편익과 한계편익을 계산하여도 같은 결론에 도달

* ‘한계편익 > 한계비용’이면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합리적
* ‘한계편익 < 한계비용’이면 층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합리적
* 결국 8층 건물을 짓는 것이 합리적 선택

1. **경제학의 분석사례: 생산가능곡선**

생산가능곡선 모형의 소개

생산가능곡선 모형은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학에서 가장 간단한 모형 중의 하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현상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경제모형으로 경제학의 많은 분야에서 활용
* 특히 앞에서 소개한 희소성, 효율성, 상충관계, 기회비용 등의 개념들을 적용해 볼 수 있으며, 인구증가나 자본축적 그리고 경제성장의 효과 등에 대한 간단한 분석이 가능

생산가능곡선의 주요 가정

* 하나의 생산주체가 존재하며 이 생산주체는 유한한 생산요소와 일정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
* 이 생산주체는 오직 두가지 상품만을 생산

생산가능곡선의 도출

생산가능곡선: 한 생산주체가 주어진 기술을 이용하여 가용한 모든 생산요소들을 남김없이 투입하였을 때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조합

* 여기에서 생산주체란 기업, 산업, 국가경제 전체 등 어떠한 생산 단위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피자만 생산하면 이를 10판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점점 그 생산 단위를 줄이고 이로 인해 남겨진 생산요소들로 음료수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고려

* 만일 피자 1판의 생산을 포기할 때마다 음료수 2병을 생산할 수 있다면

생산가능곡선의 경제학적 의미

영역(연관과는 개념: 효율성, 희소성)

생산 가능 집합: 생산가능곡선을 포함하여 생산가능곡선 아래쪽 영역

생산 불가능 집합: 생산가능곡선 위쪽 영역

* 생산가능곡선 상의 점들은 주어진 기술과 가용한 생산요소들을 모두 사용하여 최대한의 생산을 하였다는 의미에서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
* 생산가능곡선 아래쪽 영역의 점들은 생산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주어진 기술과 가용한 자원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의미에서 생산의 효율성을 만족하지 않음
* 생산 불가능집합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원과 기술의 희소성에 기인

기울기(연관되는 개념: 상충관계, 기회비용)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부호: 상충관계의 개념과 일치

*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부호는 언제나 음의 값
* 피자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음료수의 생산을 줄여야하고 음료수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피자의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생산에 있어서의 상충관계를 의미

생산가능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 기회비용의 개념과 일치

* 피자 생산을 한 단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음료수가 2병이라는 것을 의미
* 즉 이 기울기의 절대값은 ‘음료수의 단위(병)로 표시한 피자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을 의미

생산가능곡선: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목한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원점에서 오목한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직선인 생산가능 곡선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생산의 효율성, 희소성, 상충관계 등을 설명할 수 있음
*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은 생산가능곡선상에서만 만족됨
* 희소성: 생산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생산 불가능 집합이 존재
* 상충관계: 생산가능곡선 우하향(자동차의 생산을 늘리려면 쌀의 생산을 줄여야하고 쌀의 생산을 늘리려면 자동차의 생산을 늘려야 함)

기회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설명이 필요

* 직선인 생산가능 곡선의 경우 기울기는 어느 점에서든 동일하며 이 기울기가 가로축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단위는 세로축 재화의 단위)
* 생산가능곡선이 곡선일 경우에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그 점에서 생산가능곡선에 접한 직선의 기울기로 측정
* 이 직선의 기울기는 자동차 생산을 미세하게 줄일 때 한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쌀의 양을 의미하므로 기회비용의 개념과 일치
* 생산가능곡선 상에서 측정되는 이러한 기회비용을 한계변환율이라 부름

생산가능곡선이 오목한 곡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측정한 기회비용이 자동차의 생산이 증가에 따라 증가함을 의미

* 이를 한계변환율 체증의 법칙이라 함

왜 자동차 생산의 기회비용이 이와 같이 증가하는가?

* 모든 노동자들이 쌀만 생산하는 데서 출발
* 쌀 생산보다는 자동차 생산에 천부적 재질이 있는 노동자를 재배치하여 자동차를 생산한다면 쌀의 생산량을 크레 줄이지 않아도 됨
* 쌀 생산이 매우 적어지게 되면 쌀산업에는 천부적 농부만이 존재하므로 이 상태에서 자동차를 더 생산하면 쌀의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어야 함

생산가능곡선의 이동

경제성장: 생산투입요소의 양이 증가하거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한 경제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증가하는 현상

*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생산투입요소의 did이 증가하거나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정도의 라인, 도표, 스케치, 그림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기술발전이 일어나는 경우 => 생산가능곡선의 대칭적 확장
* X재에 특화된 생산요소만 증가하거나 X산업의 생산기술만이 발전하는 경우(biased economic growth) => 생산가능곡선의 비대칭적 확장스케치, 라인, 도표, 그림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3주차 : 시장의 원리

1.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시장의 정의와 구성요소

시장이란 다수의 소비자들과 다수의 생산자들이 만나 서로 합의한 가격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장소

*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물리적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거래와 같은 무형의 공간에서의 거래도 포함

개별 소비자들과 개별 생산자들은 이미 자신의 선택을 최적화한 상태에서 시장에 참여함에 유의

*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시장에 참여할 때 이미 어떤 제약하에서 어느 정도를 구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합리적인 생산자들도 시장에 참여할 때 이미 어떤 제약하에서 어느 정도를 생산/판메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계획을 보유

시장수요

시장수요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구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

* 특정 재화의 시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자동차 가격 내려가고 => 시장수요량 올라감

시장수요 곡선: 시장수요량의 변화

시장수요 곡선: 한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그에 대응하는 시장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 수요의 법칙: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할 때, 가격과 시장수요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시장 수요 곡선은 우하향
* 주어진 시장수요 곡선 하에서 가격의 변화는 시장수요 곡선 상의 움직임을 유발하며 이때 가격의 변화는 시장수요량을 변화시킨다고 함
*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의 하락은 자동차의 시장수요량을 증가시키며 이는 시장수요곡선 상의 움직임으로 나타남

시장수요 곡선의 이동: 시장수요 자체의 변화

일단 시장수요 곡선(즉 가격과 시장수요량과의 관계)이 주어지면,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화할 경우 그 시장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

* 관련된 재화의 가격, 소비자들의 소득수준, 기호나 유행, 그 재화의 기대되는 미래가격,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의 수 등이 변화할 경우에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그 재화에 대한 시장수요가 변화
* 자동차 시장의 예에서 휘발유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동차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면서 시장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시장공급

시장공급은 생산자들이 시장에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

* 특정 재화의 시장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시장공급 곡선: 시장공급량의 변화

시장공급 곡선: 한재화나 서비스의 가격과 그에 대응하는 시장공급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 공급의 법칙: 다른 모든 것이 일정할 때, 가격과 시장공급향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시장 공급 곡선은 우상향
* 주어진 시장공급 곡선 하에서 가격의 변화는 시장 공급 곡선 상의 움직임을 유발하며 이때 가격의 변화는 시장공급량을 변화시킨다고 함
*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의 상승은 자동차의 시장공급량을 증가시키며 이는 시장공급 곡선 상의 움직임으로 나타남

시장공급 곡선의 이동: 시장공급 자체의 변화

일단 시장공급 곡선이 주어지면, 그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화할 경우 그 시장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

* 생산투입요소의 가격, 기술수준, 기대되는 미래가격, 생산자의 수등이 변화할 경우에는, 모든 가격 수준에서 그 재화에 대한 시장공급이 변화
* 자동차 시장의 예에서 자동차 생산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동일한 가격 하에서 보다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

텍스트, 도표, 라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시장균형: 중형차 시장의 예

텍스트, 도표, 폰트,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시장의 원리와 시장균형

시장의 원리는 시장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할 때 소비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고, 초과공급이 발생할 때 생산자들 간의 경쟁에 의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말함

* 이를 가격을 통한 시장의 조정과정, 가격기구 시장기구 등이라고 함

이러한 가격을 통한 시장의 조정과정을 통해 결국 시장은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일치하는 시장균형을 달성하게 됨.

* 시장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을 시장균형 가격, 이때의 거래량을 시장균형 거래량이라 함
* 어떤 외부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정해진 시장균형 가격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현재의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을 변화시킬 유인이 없다는 의미에서 ‘균형’이라고 표현

시장균형의 변동

시장균형은 시장의 외부적인 요인이 변화하여 시장수요 곡선이나 시장공급 곡선이 변화하면 변동

* 자동차 시장의 예에서….
  + 소비자들의 소득이 증가
    - 자동차의 시장수요 자체가 증가
    - 시장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원래의 시장균형 가격에서 초과수요 발생
    - 가격 상승 압력 작용
    - 새로운 시장균형점으로 이동

시장균형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

텍스트, 폰트, 도표,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1. 탄력성

탄력성은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변화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

*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철판의 가격이 인상
  + 자동차 생산자들의 시장공급이 내려감 => 시장균형 가격이 올라간다
  + 소비자들의 시장수요량이 내려간다.

탄력성은 인과관계에 있는 두 변수 간에 언제나 측정 가능



수요의 가격탄력성

정의:텍스트, 영수증, 폰트, 화이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수치 예: 점 A와 B가 관측되었을 때….

텍스트, 폰트, 도표,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수요의 가격탄력성: 중간점 이용법

(기준 수요량, 기준 가격)을 (중간점 수요량, 중간점 가격)으로 대체

텍스트, 도표, 폰트, 영수증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수요의 가격탄력성: 탄력성 정도의 구분

텍스트, 라인,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일반성은 일반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므로 그 절대값을 기준으로 설명

* 완전 비탄력적 ⬄ 가격 1% 상승(하락)하면 수요는 변하지 않음
* 비탄력적 ⬄ 가격 1% 상승(하락)하면 수요는 1% 미만 감소(증가)
* 단위 탄력적 ⬄ 가격 1% 상승(하락)하면 수요는 1% 감소(증가)
* 탄력적⬄ 가격 1% 상승(하락)하면 수요는 1% 초과 감소(증가)
* 완전 탄력적 ⬄ 가격 1% 상승(하락)하면 수요는 무한히 감소(증가)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활용: 생산자의 총수입 = PQ

탄력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면 가격변화 시 생산자의 총수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음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수요의 가격탄력성: 결정요인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즉 소비자들의 협상력(negotiation power) 혹은 적응력을 반영

1. 대체재의 유무: 대체재 많다 => 소비자 협상력을 올리고 => 탄력성을 올리고
2. 일상 생활에서의 중요성:
   1. 중요성 올라감 => 소비자 협상력 감소 => 탄력성 감소 Ex> 생활 필수품
   2. 중요성 감소 => 소비자 협상력 증가 => 탄력성 증가 Ex> 사치재
3. 기간의 길고 짧음:
   1. 단기 => 소비자 협상력 감소 => 탄력성 감소
   2. 장기 => 소비자 협상력 증가 => 탄력성 증가(적응력 증가)

공급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

정의 Np = 공급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과 공급량은 일반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의 부호를 가짐

결정요인: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생산자들의 시장 협상력/적응력 반영

1. 상품의 저장가능성 및 저장비용: 저장가능성 감소 or 저장비용 증가 => 생산자 협상력 감소 => 탄력성 감소
2. 생산량 증가에 따른 비용의 변화 정도: 상품가격 증가 => 생산비용 급격 증가 => 탄력성 감소 (탄력적으로 생산량 늘리지 못함)
3. 기간의 길고 짧음:
   1. 단기 => 생산자 적응력 감소 => 탄력성 증가
   2. 장기 => 생산자 적응력 증가 => 탄력성 감소

기타 주요 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 Ey = 수요량의 변화율(%)/소득의 변화율(%)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수요의 교차탄력성 Ec = Y재 수요량의 변화율(%)/X재 가격의 변화율(%)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3 시장균형과 사회적 후생

시장균형의 재음미

시장균형은 시장에서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시장 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같은 상태를 의미

시장균형의 개념이 왜 중요한 것인가?

* 시장균형은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에 의해 결정
*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은 개별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계획과 생산계획의 합
* 시장이 균형을 달성하였다는 것은 두 경제주체 모두 자신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계획과 생산계획을 달성하였다는 것을 의미
* 더욱이 시장균형에서는 이 두 경제주체들의 합리적/효율적 행동이 하나의 균형점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있음
* 즉 시장균형은 합리적 소비자와 생산자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며 따라서 시장균형에서는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의미

시장으로부터의 이득: 소비자의 입장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곡선

* 어떤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가격을 지불의사 혹은 유보가격이라 함
* 유보 가격은 그 재화를 소비할 때 그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 혹은 행복감의 화폐 환산액과 일치
* 이제 어느 시장에 참가하려는 소비자들을 그 지불의사가 큰 순서로 가로 축에 나열하고 각 소비자들의 유보가격을 세로 축에 측정
* 소비자의 수가 충분히 많다면 각각의 유보가격을 잇는 우하향하는 선분을 그릴 수 있으며 이를 지불의사 곡선이라 함.

텍스트, 라인, 폰트, 경사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그런데 지불의사 곡선은 결국 시장수요 곡선을 반대로 읽은 것에 불과

* 시장수요 곡선: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할 용의가 있는 수요량
* 지불의사 곡선: 주어진 수요량을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 마지막 소비자의 지불의사
* 즉 시장수요 곡선과 지불의사 곡선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해석한 것

시장수요 곡선을 지불의사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소비자의 만족도 혹은 행복감을 측정하는 데 편리

* 시장수요 곡선 아래쪽 면적은 이 재화를 소비자들이 소비할 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의 총합 혹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화폐 환산 총액으로 해석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 시장수요 곡선 아래의 면적은 Q를 소비하기 위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합을 의미 (지불의사 곡선으로부터의 해석) = 행복감의 총합 = 편익
* 만일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 소비자는 자신의 지불의사를 지불 (지불의사 금액 = 실제 지불금액 => 소비에 따른 순편익, 즉 소비자 잉여는 0)
* 그러나 시장에는 오직 하나의 시장가격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는 동일한 금액인 P만을 지불
* 따라서 소비자들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지불의사가 있는 금액의 합 (소비자들이 느끼는 만족도의 화폐 환산총액)과 실제 지불금액의 합의 차이만큼의 잉여를 향유
*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편익을 소비자 잉여라고 함

시장으로부터의 이득: 생산자의 입장

수취의사 가격

* 어떤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생산자들이 수취 의사가 있는 최소한의 껵을 말함
* 수취의사 가격은 그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동일
* 이제 어느 시장에 참가하려는 생산자들을 그 수취의사가 작은 순서로 가로축에 나열하고 세로 축에는 각 생산자들의 수취의사 가격을 측정
* 생산자의 수가 충분히 많다면 각각의 수취의사 가격을 잇는 우상향하는 선분을 그릴 수 있으며 이를 수취의사 곡선이라 함 라인, 텍스트, 폰트,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그런데 수취의사 곡선은 결국 시장공급 곡선을 반대로 읽은 것에 불과

* 시장공급 곡선: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자들이 판매할 용의가 있는 공급량
* 수취의사 곡선: 주어진 공급량을 생산자들이 판매할 때 마지막 생산자의 수취의사
* 즉 시장공급 곡선과 수취의사 곡선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해석한 것

시장공급 곡선을 수취의사 개념을 적용하여 해석하면 생산자의 비용을 측정하는 데 편리

* 시장공급 곡선 아래쪽 면적은 이 재화를 생산자들이 판매할 때 수취할 의사가 있는 최소한의 금액의 총합 혹은 생산비용의 총액으로 해석

라인, 그래프, 도표,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생산자 잉여(producer surplus)

* 시장공급 곡선 아래의 면적은 Q를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가 수취할 용의가 있는 최소한의 금액의 총합 혹은 생산비용의 총합을 의미 (수취의사 곡선으로부터의 해석)
* 만일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 생산자는 자신의 수취의사 (생산비용)만큼만 수취 가능 -> 따라서 생산에 따른 순편익, 즉 생산자 잉여는 0
* 그러나 시장에는 오직 하나의 시장가격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생산자는 동일한 금액인 P를 수취
* 따라서 생산자들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실제 수취액과 생산비용의 차이만큼의 잉여를 향유
* 생산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잉여를 생산자 잉여라고 함

시장균형의 효율성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각각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 두 잉여의 합을 사회적 잉여라 함

* 사회적 잉여는 결국 시장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social welfare)
*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거래를 수행할 때 달성되는 시장균형에서 극대화
*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의해 자동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efficient)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는 Adam Smith의 사상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4주차 시장원리의 응용: 정부개입의 효과**

정부개입의 이유

시장원리에 의해 달성된 시장균형에서 소비자 잉여의 합과 생산자 잉여의 합인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모든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부개입의 이유

1 시장 실패 (market failure):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Ex> 시장에 다수의 생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독점)의 정부개입

2 형평성(equity)의 문제: 시장이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으나 경제 주체들 간의 형평성 혹은 공정성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 Ex> 경제적 강자로부터 경제적 약자로의 소득 재분배 개입

3 소비(생산)의 진작 혹은 억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재화의 소비/생산을 진작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재화의 소비/생산을 억제 Ex> 담배에 대한 조세

정부개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이유

본 강의의 목적은 다양한 방식의 정부개입이 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며, 형평성이나 공정성 등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다른 정책목표들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을 것임.

* 본 강의에서의 분석결과들은 모두 정부개입은 언제나 시장의 효율성을 악화시킨다는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효율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범적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왜냐하면 효율성 이외에도 정부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책목표가 존재하기 때문

다만, 정부의 개입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효율성을 악화시키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학적 분석일 뿐 아니라 정부당국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

1.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가격상한제

가격상한제 (price ceiling):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높아 정해진 최고가격 이하의 가격에서만 거래가 되도록 하는 제도

* 가격상한제는 주로 정부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도
  + Ex> 개발도상국 등에서 주요 식량에 대한 가격상한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 등
* 가격상한제 도입에 따라 Pc의 가격에서 초과 수요 (Qd – Qs)가 발생
* 가격상한제로 인해 가격은 상승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이 생산한 Qs 만 소비할 수 있음
* 가격상한제 전의 균형점은 E / 가격상한제 후의 소비점과 생산점은 E’

가격상한제와 사회후생의 변화

\*소비자 잉여: 지불의사의 합 – 실제 지불액의 합

\*생산자 잉여: 수취의사의 합 – 실제 수취액의 합

이제 가격상한제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측정

1 소비자 잉여의 변화 (소비점의 변화: E -> E’) = (a + b + d) – (a + b + c) = (d – c) c와 d의 크기로 부호 결정 (ambiguous)

2 생산자 잉여의 변화 (생산자의 변화: E -> E’)

= (f) – (d + e + f) = -(d + e) < 0

* 사회적 후생의 변화 = -(c + e) < 0 => 사회적 후생의 순손실(net welfare loss)

영역 c: 원래 c 잉여의 한 부분

영역 e: 원래 e 잉여의 한 부분

* 이 영역(c + e)은 이제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사라져 버린 영역이므로 가격상한제로 인한 자중손실 (deadweight loss)이라 부름

가격상한제의 다른 문제점들

최고가격에서 초과숭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 가격에서 이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자 중 일부는 이를 소비할 수 없다는 의미

1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재화의 질 저하시킬 유인

2 제한된 공급물량을 소비자들에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대추구행위 (rent-seeking behavior)가 나타날 가능성

* 선착순 배분 등이 가능하나 배분권을 가진 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

3 불법적인 암시장 (black market)이 형성될 가능성

* 모든 공급량이 암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최고가격은 Pb

가격하한제: 최저임금제

가격하한제(price floor):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 낮아 최저가격 이상의 가격에서만 거래가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최저임금제가 대표적

*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노동의 공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
*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라 Wm의 임금에서 노동의 초과공급 (Ls – Ld)이 발생
* 최저임금제로 인해 임금은 하락할 수 없으며, 노동 공급자 (노동자)들은 노동 수요자 (기업)가 수요하는 Ld만을 공급할 수 있음
* 최저임금제 전의 균형점은 E 최저임금제 후의 노동의 실제 수요점과 공급점은 E’

라인, 도표, 그래프,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최저임금제와 사회적 후생의 변화

이제 최저임금제로 인한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측정

1 소비자 잉여(여기서는 기업)의 변화(노동 수요점의 변화: E -> E’) = (a) – (a + b + c) = -(b + c) < 0

2 생산자 잉여(여기서는 노동자)의 변화 (노동 공급점의 변화: E -> E’) = (b + d) – (d + e) = b – e (b와 e의 크기로 부호 결정)

* 사회적 후생의 변화 = -(c + e) < 0 => 사회적 후생의 순손실 (net welfare loss)

영역 c: 원래 소비자 잉여의 한 부분

영영 e: 원래 생산자 잉여의 한 부분

* 이 영역(c + e)은 이제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은 사라져 버린 영역이므로 최저임금제로 인한 자중손실 (deadweight loss)이라 부름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최저임금제 관련 논쟁

최저임금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냐의 문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음.

1 최저임금제가 일자리를 줄이는가?

*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에서 노동의 초과공급이 발생하므로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어도 취업할 수 없는 노동자들, 즉 비자발적 실업을 창출
*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실제로 일자리를 줄여 실업을 발생시키는 호과는 매우 미미하다는 통계적 분석도 다수 존재

2 최저임금제는 빈곤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가?

* 최저임금제는 원래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근 연구들은 최저임금제가 효과적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하기도 함 (최저임금은 중산층 가정의 자녀에게 주로 적용)

1. 조세에 의한 정부의 개입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통한 정부의 개입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와 같이 가격을 구제하는 대신,, 정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음

* 조세 부과는 주로 해당 재화의 거래량을 줄이고자 할 때 사용되며 정부수입을 증가시키게 됨
* 보조금 지급은 주로 해당 재화의 거래량을 증가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며 정부지출을 증가 (혹은 정부 수입을 감소) 시키게 됨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소비행위를 생산자들은 생산행위를 하므로 조세와 보조금은 각각 소비행위와 생산행위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지급됨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소비세 도입에 따른 소비자 행동의 변화

이제 정부가 소비 한 단위 당 t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

* 소비세가 부과되더라고 소비자들이 이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행복감은 여전히 수요곡선 D에 의해 표시되며 따라서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도 수요곡선 D와 동일
* 그러나 이제 소비자들은 이 재화를 소비할 때 소비세 t만큼 덜 행복한 것처럼 (즉 원래의 수요곡선 (D)보다 t만큼 아래로 수평 이동한 새로운 수요곡선 (D – t)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만 함.
* 이는 시장에서의 균형은 여전히 소비자와 생상자의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
* 다시 말해 소비세의 부과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수요곡선 D)과 소비자들의 시장에서의 행동 (새로운 수요곡선 D – t) 사이에 괴리를 창출

라인, 텍스트, 도표,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장균형의 변화

이제 시장균형은 점 E에서 점 ECT로 이동

* 생산자들의 행동은 여전히 S의 공급곡선을 따르게 되나, 소비자들의 시장에서의 행동은 D – t의 새로운 수요곡선을 따르게 되기 때문
* 원래의 균형점과 비교하여 볼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가격은 하락(P -> Pf)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 (Q – Qct)
* 소비자들은 Pp의 가격을 시장에서 생산자들에게 지불하고 생산자들은 이를 수용 (생산점: Ep)
* 동시에 소비자들은 t의 소득세를 정부에 납부
* 즉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최종 가격 Pc는 생산자들에게 지불하는 가격 Pp와 정부에 지불하는 소득세 t의 합계 (Pc = Pp + t, 소비점: Ec)
* 원래 점 E에서 일치하였던 소비점과 생산점이 소비세 도입에 따라 Ec와 Ep로 불일치

소비세 도입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

소비세 도입 이전의 시장균형과 비교하여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계산

* 소비자 잉여의 변화 –(b+c+d) < 0
* 생산자 잉여의 변화 –(e+f+g) < 0
* 정부 조세 수입의 변화 +(b+c+e+f) > 0

사회적 후생의 변화 –(d+g) < 0 => 사회적 후생의 순손실

* 소비세의 도입은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며 따라서 사회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창출

판매세 도입에 따른 생산자 행동의 변화

이제 정부가 판매 (혹은 생산) 한 단위 당 t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

* 이러한 판매세의 부과는 시장에서 생산자들의 행동을 왜곡시키게 됨
* 생산자들은 원래의 공급곡선 (s)대신 t만큼 위로 수평 이동한 새로운 공급곡선 (S + t) 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행동
* 그러나 생산자들이 자신의 생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금액은 여전히 원래의 공급곡선에 반영되어 있음에 유의
* 다시 말해 판매세의 부과는 생산자들이 생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금액과 생산자들의 시장에서의 행동 사이에 괴리를 창출

라인, 도표, 그래프,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판매세 도입에 따른 시장균형의 변화

이제 시장균형은 점 E 에서 점 Ept로 이동

* 소비자들의 행동은 여전히 D의 수요곡선을 따르게 되나, 생산자들의 시장에서의 행동은 S + t의 새로운 공급곡선을 따르게 되기 때문
* 원해의 슌형점과 비교하여 볼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은 감소
* 생산자들은 Pc의 가격을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받고 소비자들은 이를 수용(소비점: Ec)
* 동시에 생산자들은 t의 판매세를 정부에 납부
* 즉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최종 가격 Pp는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가격 Pc에서 정부에 지불하는 판매세 t를 차감한 것(Pp = Pc – t, 생산점: Ep)
* 원래 점 E에서 일치하였던 소비점과 생산점이 판매세 도입에 따라 Ec와 Ep로 불일치

판매세 도입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변화

판매세 도입 이전의 시장균형과 비교하여 사회적 후생의 변화를 계산

텍스트, 라인, 폰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소비세와 판매세의 동질성

소비세와 판매세는 시장균형 가격이 소비세는 하락하고 판매세는 상승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면에서 동일

텍스트, 도표, 라인,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조세의 부담

조세의 부과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잉여를 감소시키게 되는게, 이때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가는 일반적으로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에 의존

텍스트, 라인, 도표,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3 관세에 의한 정부의 개입

무역의 이득: 수입의 경우

자급자족 경제에서 어느 시장이 점 E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을 경우의 소비자 잉여와 샌산자 잉여의 합은 CSa + PSa

이 재화의 세계시장 가격이 P보다 낮은 Pw일 경우 이 국가는 이 재화의 수입국이 될 것이며, 이때의 소비자 잉여는 CSm으로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는 PSm으로 감소 (수입량 = Qwd – Qws)

* CSa + PSa < CSm + PSm : 수입에 의한 이득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관세의 부과 : 수입국이 소국(small economy : 세계시장가격 영향 X)인 경우

수입국 정부가 이 재화에 대하여 단위 당 t원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된 재화의 국내 가격은 Pw + t로 상승

* 자유무역의 경우에 비해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은 증가(Qws -> Qts),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감소 (Qwd -> Qtd), 수입량은 감소 (Qwd – Qws -> Qtd – Qts)

텍스트, 라인, 폰트,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소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순손실의 의미

영역 b (생산에 있어서의 비효율)

* 자유무역 시 국내 가격인 Pw에서는 생존하지 못하였을 생산자들이 관세부과로 국내 가격이 Pw + t로 상승함에 따라 생산활동을 영위
* 관세의 부과는 비경쟁적 생산자들도 시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을 창출

영역 d (소비에 있어서의 비효율)

* 자유무역 시와 비교할 때 관세의 부과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적은 양의 재화를 더 높은 가격에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을 창출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관세의 부과 : 수입국이 대국(large economy)일 경우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수입하는 대국(large economy)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

* 이는 세계 시장에서 이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며 따라서 세계 시장 가격 자체가 일단 하락(Pw -> Pw) => 교역조건의 개선 = P수출재/P수입재
* 이제 관세 부과에 따라 국내 가격은 Pw + t로 상승

텍스트, 폰트, 라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대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사회적 순손실의 의미

소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역 b와 영역 d는 각각 생산 측면과 소비측면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

영역 e(교역조건 개선에 따른 이득)

* 영역 e = 관세 부과 후 수입량 x (관세 부과 전 세계 시장 가격 – 관세 부과 후 세계 시장 가격)
* 관세 부과 전후 세계 시장 가격의 변화는 대국인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이 재화의 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
* 교역조건 = 수출재의 가격 / 수입재의 가격
* 이는 관세의 부과로 이 국가가 세계 시장에서 구매하는 수입재의 가격을 하락시켰으므로 교역조건 개선을 의미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제 5주차 :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1 소비자의 제약과 목적

소비자의 제약

소비자가 소비 행위를 하는데 있어 가지게 되는 제약(constraint)은 예산의 희소성에 의해 발생하는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

* 주어진 예산이 2만원, 피자 한조각 가격이 2천원, 음료수 한병 가격이 1천원일 때 선택 가능한 (피자 소비, 음료수 소비)의 묶음

텍스트, 스크린샷, 라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소비자 제약의 일반화

예산선 (budget line): 소비자의 예산과 재화의 가격이 주어져 있을 때, 소비자가 자신의 예산을 모두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모든 묶음

텍스트, 폰트, 라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예산선 기울기의 의미

피자 – 음료수의 예에서 P피자 = 2천원, P음료수 = 1천원이므로 예산선 기울기는 – P파자 / P음료수 = - 2천원 / 1천원 = -2

* 만일 피자 한 조각의 소비를 포기한다면 (2천원을 절약할 수 있고 이 돈으로 1천원 짜리인) 음료수 2병을 소비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울기의 절대값 “2”는 음료수의 단위 (병)로 표시한 피자 한 조각 소비의 기회비용

예산선의 기울기: -Px/Py (X의 상대가격) => 절대값의 의미 (-Px = 언제나 음의 값 : 상충관계 때문)

* Y재의 단위로 표시한 X재 소비의 기회비용
* Y재 가격 대비 X재의 상대가격
* 이는 시장이 결정한 X재와 Y재 사이의 객관적 교환비율임에 유의(시장에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환비욜)

텍스트, 라인, 도표,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예산선의 변화

주어진 가격이나 예산이 변화하면 예산선도 변화 (원래 : PxX + PyY = M)

1. 소득 증가 (M -> M’)
   1. 예산선 기울기는 그대로인 채로 절편만 증가 (예산선 평행이동)
2. Px가 하락하는 경우 (Px -> Px’)
   1. 예산선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가로축 절편 증가

라인, 텍스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소비자의 목적

소비자의 목적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소비를 통한 행복(happiness) 혹은 만족 (satisfaction)을 극대화하는 것

* 소비를 통한 행복 혹은 만족을 경제학에서는 효용 (utility)이라 부르며 따라서 소비자들은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

피자 (가격 2천원) – 음료수 (가격 1천원)의 예

* 점 (10, 20)은 소비 불가능 (예산 2만원 하에서 4만원의 지출은 불가능)
  + 소비 불가능 집합 내의 모든 점은 제외
* 점 (3, 10)은 소비 가능하나 1만 6천원을 지출 (4천원의 여유 예산으로 효용의 추가적 증가가 가능)
  + 예산선 안쪽 영역은 제외
* 결국 합리적 소비자들은 예산선 상에서 가장 큰 효용을 주는 점을 선택

등고선의 원리

등산가들의 목적은 산소가 허락하는 한 가장 높은 고도(height)에 도달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등고선을 그린 2차원 평면도를 이용

텍스트, 도표, 스케치, 그림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효용의 수준을 그래프로 나타내기

소비자가 특정한 양의 (X, Y)를 소비할 때 느끼는 효용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면, 지리학의 등고선 원리를 이용하여 모든 효용수준을 2차원 평면에 표시할 수 있음

도표, 라인, 평면도,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무차별곡선

지도의 등고선이 동일한 높이를 나타내 듯, 동일한 효용을 주는 재화의 묶음을 잇는 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를 이 소비자의 무차별곡선 (indifference curve)이라 함

* 동일한 무차별곡선 상의 모든 점들은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점을 선택하든 무차별(indifferent)
* 무차별곡선은 등고선과 특성이 비슷
  + 1. 두 무차별곡선은 만날수 없음
  + 2.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높은 수준의 효용을 줌
* 무차별곡선은 두 재화묶음 간의 선호를 알려 줌
  + 1. B는 A 혹은 C보다 선호됨
  + 2. A와 C는 무차별

라인, 도표, 그래프,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무차별곡선 기울기의 의미

점 A와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2

* 이 소비자가 X재의 소비를 한 단위 줄이는 대신 Y재를 두 단위 더 소비한다면 이 소비자의 효용수준은 효용수준은 동일 (A와 B는 무차별)
* 이 소비자가 X재 1단위와 교환하고자 하는 Y재의 수량은 2 (이 소비자는 X재 1단위의 가치가 Y재 2단위와 동일하다고 평가)
* 이는 이 소비자가 평가하는 ‘Y재의 단위로 표시한 X재 1단위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
*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X재를 Y재로 대체할 때의 주관적 교환비율을 한계대체율(MRS :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 함.
* 점 C에서 측정한 한계대체율은 1 / 점 E에서 측정한 한계대체율은 3

라인, 도표, 폰트,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

한계대체율(MRS): Y재의 단위로 표시한 X재 1단위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로 해석

* 이는 무차별곡선 상의 한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측정

X재의 소비가 증가할수록 한계대체율은 감소하는데 이를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 함

* X재를 풍부하게 소비하고 있는 상태 (점 C) : X재 1단위의 상대적 가치는 낮음 (기울기 1)
* X재를 희소하게 소비하고 있는 상태 (점 E) : X재 1단위의 상대적 가치는 높음 (기울기 3)

라인, 도표, 그래프,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달성

* 이는 점 D에서와 같이 예산선이 무차별 곡선에 접할 때 달성

점 D에서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즉 한계대체율)와 예산선의 기울기 (즉 X의 상대가격)가 일치

텍스트, 폰트, 라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3 소비자 선택 이론의 확장

한계효용

한계효용 (MU: marginal utility): 다른 재화의 소비수준은 그대로 두고, 오직 한 재화의 소비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느끼는 효용의 증가분

* (피자, 음료수)를 소비하는 경우 두개의 한계효용이 정의 가능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다른 재화의 소비수준은 그대로 두고, 한 재화의 소비를 한 단위씩 계속 증가시키면 한계용은 감소

* 음료수의 소비는 1병으로 고정하고, 피자를 계속 먹을 경우 피자소비의 한계효용은 감소

한계대체율(MRS)은 두 한계효용의 비율로 정의 가능

텍스트, 폰트, 화이트,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효용극대화의 다른 표현

1 효용극대화 조건: MRSxy(무차별곡선 기울기) = Px/Py(예산선 기울기/Y재의 단위로 표시한 X재 한 단위에 대해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 = (Y재의 단위로 표시한 X재 한 단위 소비의 기회비용)

2 한계대체율과 한계효용: MRSxy = Mux/Muy

따라서 효용극대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현 가능

Mux/Muy = Px/Py or Mux/Px = Muy/Py

의미

텍스트, 폰트, 대수학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소비곡선

다른 모든 조건 (Px, Py)은 일정하고 소득(M)만 증가할 때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점들을 표시

* 가능한 모든 M에 대하여 이를 수행한 후 효용극대화 점을 이으면 이를 소득 – 소비 곡선 (income – consumption path)이라 함

도표, 라인,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다른 모든 조건 (Py, M)은 일정하고 Px만 감소할 때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점을 표시

* 가능한 모든 Px에 대하여 이를 수행한 후 효용극대화 점을 이으면 이를 가격-소비곡선 (price-consumption path)이라 함

도표, 라인, 스케치,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수요곡선의 도출

앞서 도출한 가격 – 소비곡선을 통해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

* 가격 – 소비곡선은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X, Px) 평면에 옮겨 그림
* 따라서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downward-slopint)

개별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이의 수평함(horizontal summation)인 시장수요곡선도 우하향! (수요의 법칙 : Law of Demand)

도표, 라인,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제 6주차 : 기업의 합리적 행동**

1 기업의 목적과 단기비용

기업의 목적과 제약

기업의 목적은 이윤 = 총수입 – 총비용을 극대화 하는 것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먼저 생산량이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생산곡선에서부터 논의를 시작

생산량과 비용의 관계: 단기 생산곡선

자본(K)의 양은 고정(기계 1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동(L)의 양만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를 고려

* 단기(short-run)라는 것은 자본의 양을 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비교적 짧은 시간을 의미

일반적으로 투입요소와 생산량 간의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라 하고 그 그래프를 생산곡선이라 함

노동과 생산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기 생산곡선은 일반적으로 S자 모양

* 노동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은 증가
* 노동의 한계생산(노동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증가하는 생산량: 생산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로 측정)은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결국 감소(노동의 한계생산은 체감)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생산량과 비용의 관계: 총비용

노동 1단위의 가격(임금)이 2라고 가정하면 이 단기 생산곡선으로부터 노동비용을 도출

* 노동의 양이 변화함에 따라 노동비용은 변화하므로 이를 총가변비용(total variable cost)곡선이라 함

총비용 곡선의 도출

* 자본의 양은 변화하지 않으므로 자본 비용을 고정요소 (total fixed cost)이라 함
* 총비용 (TC) = 총가변비용(TVC) + chd고정비용 (TFC) (=K = 1(고정))

텍스트, 도표, 라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생산량과 비용의 관계 :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

총비용 곡선으로부터 평균비용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음.

* 평균비용(AC: average cost) = TC/Q : 한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평균적 비용(총비용 곡선 상의 한 점과 원점을 이은 선분의 기울기)
* 한계비용(MC: marginal cost) = change of TC / change of Q :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데 드는 추가적 비용(총비용 함수의 점선의 기울기)

텍스트,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참고: 평균과 한계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한계비용 곡선이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것은 수학적 결과

* ‘평균’이 감소하려면 한계는 평균 아래에 위치
* ‘평균’이 증가하려면 한계는 평균 위에 위치

예를 들어

* ‘평균’성적을 증가시키려면 추가적인 학기의 한계적 성적은 과거의 평균성적보다 높아야함
* ‘평균’성적을 감소시키려면 추가적인 학기의 한계적 성적은 과거의 평균성적보다 낮아야 함

도표, 라인, 그래프, 스케치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2 기업의 장기비용

단기 평균비용과 장기 평균비용

지금까지의 모든 비용곡선은 단기(자본을 변화시킬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서의 비용곡선(SAC: short-run cost)

* 이제 서로 다른 자본량 K1, K2, K3에 대한 단기 평균비용 곡선을 고려
* SAC1(K1)은 비교적 적은 양의 생산량에서 최소화 되고 SAC2(K2)는 비교적 많은 양의 생산량에서 최소화되므로 K1 < K2 < K3

이제 만일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어떤 수준의 자본량이라도 선택 가능하다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단기 평균비용 곡선의 맨 아랫부분을 선택하는 것

* 이 단기 평균비용 곡선의 아랫부분을 이은 곡선이 장기 평균비용 곡선 (따라서 상기 평균비용 곡선은 단기 평균비용 곡선의 포락선)

텍스트, 폰트, 라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장기 평균비용과 규모의 경제

만일 자본의 양을 매우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면 장기 평균비용(LAC: long-run average cost)은 매우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

장기 평균비용 곡선은 생산규모가 변함에 따라 기업의 비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줌

1. 규모의 경제(economices of scale):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장(주로 생산 초기에 발생) AC 하락
2. 규모의 불경제(diseconomies of scale):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 평균비용이 상승하는 현상(주로 생산량이 많을 때 발생) AC 증가
3.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생산량이 증가해도 장기 평균비용이 변화하지 않는 현상 AC-

도표, 라인, 그래프, 디자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장기 평균비용과 장기 한계비용

‘평균’과 ‘한계’ 곡선의 관계에 따르면…

* 평균비용이 하락하려면 한계비용은 평균비용 아래에 위치
* 평균비용이 상승하려면 한계비용은 평균비용 위에 위치

따라서 장기 한계비용 곡선은 (LMC) 장기 평균비용 곡선(LAC)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뚫고 돌라가는 모양

라인, 도표, 그래프,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기업의 목적과 제약: 재음미

기업의 목적은 ‘이윤 = 총수입 – 총비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

텍스트, 폰트, 화이트, 대수학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w, r, 기술수준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단순화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3 완전경쟁 하에서 기업의 선택

완전경쟁 시장의 특징

완전경쟁(perfect competition)시장: 완벽한 정보를 갖춘 수요자와 공급자가 동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

*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
* 한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동질적
* 장기적으로 기업들은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시장으로부터 자유롭게 퇴출 될 수 있음(진입/퇴출 장벽이 없음)
*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완전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격 수용자(price-taker)로서 행동 (개별 수요자와 개별 공급자들은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여기에서의 ‘장단기’는 비용함수에서의 ‘장단기’와 다른 의미

* 비용함수에서의 단기: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정도의 짧은 시간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단기: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불가

완전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수입

기업의 총수입은 가격과 생산량에 의해 결정

* TR = P \* Q

그러나 완전경쟁 하에서 가격은 시장이 정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P는 시장가격에서 고정

* 따라서 기업의 평균수입(AR: average revenue)과 한계수입(MR: marginal revenue)은 P에서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일
* P = AR = MR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완전경쟁 하의 기업의 생산량 선택

Reminder: 2주차 강의 제2강 [합리적 선택의 방법: 3 한계적 분석]

*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한계적 편익과 한계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이때 순편익(편익 – 비용)이 극대화

기업의 입장에서 이를 적용하면, 편익은 판매수입(TR), 비용은 생산 비용(TC), 순편익은 이윤을 의미

* 따라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 기업은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을 일치시키는 생산량을 선택 (MR = MC => 이윤 극대화)
* 이제 앞에서 논의한 기업의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을 함께 고려

기업의 생산량 결정: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공급곡선의 도출

기업은 자신의 평균비용 곡선과 한계비용 곡선을 알고 있음 MR = MC => Q결정

텍스트, 도표, 라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기업의 생산량 결정: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공급곡선의 도출

기업은 자신의 한계비용 곡선을 따라 주어진 가격 하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므로 한계비용 곡선이 곧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

* 그러나 만일 가격이 AC의 최저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이 기업은 손실을 보게 되고 (사격형의 면적) 따라서 공급을 하지 않음
* 따라서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기업의 한계비용 곡선 중 AC의 윗쪽 부분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기업의 생산량 결정: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단기 공급곡선의 도출

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한계비용 곡선이므로 이 시장의 시장공급 곡선은 이들 단기 공급곡선의 수평 합(horizontal summation)

* 따라서 단기의 시장공급 곡선도 우상향: 공급의 법칙(Law of supply)

텍스트, 라인, 도표, 영수증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기업의 생산량 결정: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공급곡선의 도출

장기에서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

*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양(+)의 이윤을 향유
  +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입
  + 시장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하락
  + 시장진입 및 가격하락에 의한 이 조정과정은 기업의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지속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기업의 생산량 결정: 완전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공급곡선의 도출

결국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장기에서 기업의 생산점은 언제나 평균비용 곡선의 최저점과 일치

* 어떤 이유로든 이 수준 이외의 가격이 책정될 경우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가격은 P\*로 회귀
* 따라서 장기의 시장공급 곡선은 P\*에서 완전탄력적인 수평선 (어떠한 시장공급량에서도 동일한 가격 P\*)

텍스트,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완전경쟁 시장의 장기 공급곡선에 대한 추가적 논의

1. 기업의 장기 공급균형점이 평균비용의 최저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
   1. 완전경쟁에서의 치열한 경쟁은 기업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방식 (평균비용의 최저점)으로 생산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
2. 시장의 장기 공급곡선은 공급의 법칙을 위반하는가?
   1. 만일 시장의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 기업들의 비용(노동비용, 자본비용 등)이 증가하여 평균비용이 상승한다면 시장의 장기 공급곡선은 우상향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제 7주차: 시장의 실패 1**

0 들어가기

시장의 분휴와 시장의 실패

완전경쟁 시장의 특성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에 따라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불완전 경쟁시장이라 함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완전경쟁 시장이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시장형태이므로 이를 벗어나는 불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한다고 말함

독점의 정의와 존재이유

독점(monopoly):대체재가 없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독점자, monopolist)이 시장공급을 장악한 상태

* Microsoft의 OS프로그램 시장 독점, 케이블방송의 지역독점 등
*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자는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 지배력(market power)혹은 독창적 지배력(monopoly power)의 행사하고 함

독점의 존재 이유: 진입장벽의 존재

1. 희소한 자원: De beers의 다이아몬드, 중국의 희토류(rare earth)
2. 규모의 경제: 케이블방송산업, 기반시설이 필요한 전력/가스/수도 => 자연독점(natural monopoly))발생 가능
3. 정부의 개입: 지적재산권에 의한 사적 독점권
4. 공격적 전술: 인터넷사업자들의 약탈적 가격행위 등

독점기업의 목적

독점기업 역시 경쟁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 = 수입 – 비용’을 극대화

Reminder: 제2주차 가의 [합리적 선택의 방법: 3 한계적 분석]

* 편익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한계적 편익과 한계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이때 순편익(편익 – 비용)이 극대화

따라서 독점기업 역시 한계수업(MR)와 한계 비용(MC)이 일차하는 생산량에서 이윤을 극대화

* 한계비용은 기업의 생산곡선 -> 총비용 -> 한계비용의 순서로 도출되는 것이며 지난 주차의 논의가 그대로 적용
* 한계수입은 총수입(가격 x 생산량)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독점기업과 완전경쟁 기업의 차이가 발생

독점기업의 수요곡선

독점기업은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시장수요 곡선 자체가 자신의 수요곡선

* 완전경쟁적 기업은 시장수요와 시장공급이 일치하는 균형가격 하에서 자신의 수요곡선은 수평이라고 인식
* 독점기업은 어떤 가격도 부과할 수 있으나, 가격의 변동은 시장수요 곡선을 따라서 시장수요량에 영향을 미침(수요의 볍칙) (TR = P \* Q)
* 독점기업은 가격을 높이려면 수요량 (즉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줄고, 수요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하락시켜야 하는 상충관계에 직면

라인, 도표, 그래프,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독점기업의 한계수입 고선

완전경쟁기업은 생산량을 늘려도 가격불변

* 따라서 경쟁기업의 평균수입과 한계수입은 시장가격 수준에서 일정 => P = AR = MR

독점기업은 생산량을 늘리려면 가격을 인하

* 따라서 독점기업의 평균수입은 가격과 동일하지만 생산량 증가에 따라 하락
* 평균수입이 하락하므로 한계수입은 그 평균수입보다 낮아야 함 => P = AR > MR

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독점기업의 한계수입 곡선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 완전경쟁적 기업은 시장가격에서 수평인 수요곡선에 직면하며, 이 수요곡선은 평균수업 곡선, 한계 수입 곡선과도 일치
*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시장수요 곡선에 직면하며 이 수요곡선은 평균수입 곡선과 일치하지만, 한계수입 곡선은 평균수요 곡선(즉 수요곡선)의 아래쪽에 위치

라인, 도표, 그래프,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이제 시장수요 곡선으로부터 도출한 한계수입 곡선과 기업의 비용곡선들을 포개어 그리면..

* 독점기업은 우선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 (MR = MC)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선택
* 생산량이 결정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총비용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기업은 총수입(가격 x 생산량)을 극대화하면 됨
* 총수입 (가격 x 생산량)의 구성요소 중 생산량은 이미 선택되었으므로
* 독점기업은 수요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시장수요 곡선 상의 점)을 독점가격으로 책정
* 극대화된 총이윤 = 총수입(Pm x 쁘) – 총비용 (AC x Qm) AC = pie/Q ; TC = AC x Q

도표, 라인, 그래프, 원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독점의 후생적 비용

독점시장 균형점은 M: Pm의 가격에 쁘이 공급됨

* 이때 MR = MC < Pm이 성립: 독점기업은 자신의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
* 완전경쟁 기업의 경우에는 P = MC가 성립(marginal cost pricing)

독점기업으로 하여금 marginal cost pricing 을 따르도록 강제한다면 새로운 균형은C

* 독점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완적경쟁 시장에 비해 더 높은 가격에서 (Pm> Pc) ; 더적은 양을 (쁘 < Qc)소비

라인, 도표, 폰트,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독점의 후생적 비용

독점에 의한 사회적 후생의 변화 (점 C -> 점 M)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따라서 독점은 완전경쟁에 비해서 사회적 후생을 언제나 악화시킴

*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정부들은 반독점법(anti-trust law)혹은 공정거래법을 제정하여 기업들의 독점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2 독점적 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의 정의와 특성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 수많은 기업들이 차별화된 제품(differentiated products)을 생산하는 시장구조

* 차별화된 제품: 서로 비슷하지만 완전 대체재(perfect substitute)는 아닌 제품들
* 동일한 장르의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의 음원, 수 많은 아이스크림 회사가 생산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독점적 경쟁시장은 독점시장의 요소와 경쟁시장의 요소가 혼재하는 시장

* 독점적 요소: 차별화 제품을 생산하므로 어느 정도의 독점력 보유 => 독점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진다는 의미 따라서 MR = MC에서 생산량을 결정한 후 수요곡선 상에서 가격을 결정(P> MR = MC)
* 경쟁적 요소: 수많은 대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높은 가격 책정 불가 => 결국 수많은 대체재들의 가격은 동일하게 책정되고 장기적으로 시장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와 기업의 이윤은 0

독점적 경쟁: 단기슌형

단기의 의미: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이 불가하여 기업 수가 고정

단기에서 자신의 차별화된 제품에 일정한 독점력을 보유한 기업은 독점 기업과 동일하게 행동

* 한계수입 = 한계비용 (MC)에서 Qs결정
* Qs에서 수요곡선 상의 가격 Ps 결정
* 사각형 모양의 이윤 획득

라인, 도표, 그래프, 종이접기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폰트, 친필, 서예,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독점적 경쟁: 장기균형

장기의 의미: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이 자유로움

* 독점적 경쟁기업이 양(+)의 이윤을 누리는 한 새로운 기업들이 끊임 없이 진입
* 더 많은 기업이 진입하였으므로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은
  + 1. 왼쪽으로 이동(개별기업의 수요 하락)
  + 2. 가격에 대해 보다 더 탄력적인 수요로 변화 (대체재의 수 증가 = 기울기 하락)

동일한 이윤극대화 과정을 거친 후 장기에서 결국 기업의 이윤은 0

텍스트, 라인, 도표,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독점적 경쟁의 사회적 후생

독점적 경쟁의 단기균형은 완전경쟁에 비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킴

* 삼각형 만큼의 자중손실

독점적 경쟁의 장기 균형도 완전 경쟁에 비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킴

* 그러나 장기균형의 자중손실 규모가 더 적음

라인, 도표, 그래프, 종이접기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독점적 경쟁의 다른 특징들

독점적 경쟁기업은 AC의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생산

* 독점적 경쟁기업은 효율적 규모보다 적게 생산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
* 이는 독점적 경쟁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누리면서 생산활동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텍스트, 라인, 도표,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독점적 경쟁의 다른 특징들

독점적 경쟁의 장기균형: P>MR = MC, P = AC (기업이윤0)

* 독점적 경쟁기업은 완전경쟁 기업과 달리 MC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나 완전경쟁 기업과 같이 0의 이윤을 가짐
* 수많은 brand의 존재로 소비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 (love of variety) => 독점적 경쟁기업이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보유하더라도 정부가 이들을 규제하지는 않음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3 과점시장

과점시장의 정의와 특징

과점시장(oligopoly)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소수만 존재하는 시장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산업은 이러한 과점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 (한국: SKT, KT, LG U+)

과점시장(Oligopoly)의 기업들은 전략적 상호작용 (strategic interaction)을 하는 것이 특징

* 소수의 기업들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기업의 행위는 다른 기업에 의해 쉽게 포착
* 따라서 기업들은 자신의 행위가 다른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자신의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감안하여 자신의 행위를 선택
  + =>이는 마치 과점기업들이 자신의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경쟁자들과 일종의 게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경제주체의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는 게임이론(game theory)의 접근법을 활용

3. 과점시장

[복점 시장에서의 전략적 상호작용 ]

복점 시장(duopoly)은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과점 시장의 한 총류

A, B는 한강에서 물을 퍼서 팔 권리가 있는 유일한 두 기업이며, 생산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총비용=한계비용=0)

* 이 시장에단 하나의기업만 존재한다면, 총이윤이 196 에서 극대화 되므로 14의 가격에 14톤의 물을 공급(한계 수입이 한계비용 보다 큰 한, 공급을 창 시키는 것이 유리)
* 이 시장에 수많은 기업이 존재한다면, 가격은 한계비용과 동일하므로 0의 가격에 28 톤의 물을 공급하고 이 때 총이윤은 0 (원전경제 : P=M.C)

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복점시장에서의 전략적 상호작용

1. A, B가 담합을 하여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생산량과 총이윤을 반씩 나눌 경우…
2. B가 7을 생산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A는 9로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적으로 유리
3. A가 9를 생산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B도 9로 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적으로 유리
4. B가 9를 생산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A는 더 이상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B도 마찬가지)

텍스트, 폰트, 도표,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텍스트, 스크린샷, 번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복점시장에서의 전략적 상호작용

결국 이 복점시장에서의 전략적 상호작용은 표 3에서 멈추고 이것이 이 복점게임에서의 균형

* 이러한 균형을 Nash 균형(Nash equilibrium)이라고 함
* B의 행위가 주어졌을 때 A가 현재의 행위를 바꿀 유인이 없고 그와 동시에 A의 행위가 주어졌을 때 B가 현재의 행위를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

텍스트, 도표, 폰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복점시장에서의 전략적 상호작용

이러한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한 Nash 균형의 존재는 다음을 시사

1. 결합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담합(cartel)은 경제학적으로 불안정적(unstable)
   1.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음(per se illegal)
2. 복점기업들 간의 사적이윤 추구에 의한 경쟁이 가격을 하락시키기는 하지만, 완전경쟁 수준의 가격(이 예에서는 0)에까지 이르게 하지는 못함
   1. 따라서 복점 역시 독점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완전경쟁에 비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후생 손실을 창출

텍스트, 폰트, 친필,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제 9주차 : 시장의 실패 2**

0 들어가기

시장실패의 다른 요인들

시장실패는 경쟁에 의해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의 상황을 의미

시장실패는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등 불완전 경쟁적 (imperfect competition)시장의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

1. 외부효과의 존재
2. 공공재와 공유지원의 존재
3. 정보 비대칭성의 존재

완전 경쟁적 상황에서는 시장의 기능에 의해 효율성이 자동적으로 달성되지만, 시장실패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 될 수 있음

1 외부효과의 정의와 종류

외부효과: 한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

* 어떤 경제행위에 의해 유발된 편익이나 비용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가나 보상 없이 주어지는 경우

1. 긍정적 외부효과: 의도하지 않은 편익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
   1. 지하철 역의 신축으로 부근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2. 한 기업에서 수행한 R&D의 효과가 다른 기업에게 전이(transfer)되는 경우
2. 부정적 외부효과: 의도하지 않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
   1. 지하철 역의 신축으로 부근의 버스회사가 손실을 보는 경우
   2. 환경오염 물질, 온실가스 배출 등을 일으키는 소비/생산활동으로 대시오염, 수질오염, 지구온난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외부효과의 문제점

외부효과는 사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편익/비용 사이에 괴리를 창출

* 시적 편익/비용: 경제행위의 주체가 얻는 개인적인 편익/비용
* 사회적 편익/비용: 경제행위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편익/비용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 외부효과에 의한 외부 편익

* 긍정적 외부효과 => 외부편익 > 0 =>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 부정적 외부효과 => 외부편익 < 0 =>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 사적으로 효율적인 결과가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과

시장수요/공급곡선에 대한 또 다른 해석

시장수요 / 공급 곡선에 대한 새로운 해석

* 시장수요 곡선: 한 단위의 소비가 늘어날 때마다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느끼는 한계적 편익(시적 한계편의, PMB)
* 시장공급 곡선: 한 단위의 생산이 늘어날 때마다 생산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한계적 비용(사적 한계바용, PMC)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적 한계편의과 시적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균형 달성

*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편익ㆍ비용은 사적 편익ㆍ비용과 일치
* 시장균형은 사회격 효율성도 달성

부정적 외부효과의 영향

이제 생산과정에서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켜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산측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소비측면에서는 외부효과가 없다고 가정)

* 이는 사회적 한계비용이 부정적 외부효과만큼 사적 한계비용보다 커지게 됨을 의미
* 사회적 효율성은 SMB=SMC가 만족되는 점 E 에서 달성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ES)보다 더 싼 가격에서 더 많은 양을 생산.소비

* 소비측면에서만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도 분석 결과는 동일

부정적 외부효과에 의한 사회후생의 변화

사회적 효율성이 만족된 ES에서부터 출발

* Qs에서 이 재화를 한 단위 더 생산한다면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회적 한계편익보다 더 크므로 그 차이만큼의 사회적효율성의 손실이 발생
* 사적 효율성이 만족되는 E까지 이를 지속한다면 사회적 효성의 손실분은 삼각형의 면적과 동일
* 사회적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수준에 비해 사적 효율성을 만족시키는 수준의 거래량이 더 많기 때문에(즉 과다 생산. 소비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효율성 손실분으로 해석
* 이 사회적 손실은 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시장 외부자 들이 감당해 야 하는 손실로 해석해야 함

부정적 외부효과의 교정: 피구세 (Pigouvian Tax)

피구세: 생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효과의 정도만큼 생산활동에 과세

* 이제 생산자들은 시장에서 PMC 대신 SMC(= PMC + t)를 따라 행동
* 이 때 왜성 에 의한 사회적 손실은 사라지는 대신. 정부개입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 손실이 정확히 동일한 정도로 발생
* 그러나 이는 사회적으로 바람직: 시장 외부자의 사회적 손실이 사라지는 대신 그것이 시장 내부자\_ 의 사회적 손실로 전환된 것
* 이를 외부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라 함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영향, 사회후생의 변화, 교정 방법 등을 분석할 수 있음.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너무 많이 거래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너무 적게 거래한다는 것이 문제
* 사회적으로 효율적 수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와 마찬가지로 사회후생의 손실이 발생
* 사회적으로 효율적 수준으로 더 많이 거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금 (Pigouvian subsidy)하여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음

2 공공재와 공유자원

재화의 속성과 그에 따른 종류

재화의 속성

* 배제 가능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비를 배제(혹은 금지)할 수 있는 속성
* 경합성: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를 못하거나 소비를 줄여야하는 속성

재화의 종류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공공재의 문제

공공재 : 배제 불가능하면서 비경합적

*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하게 강제할 수 없으면서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도 없는 재화 => 공공재는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자 문제 (free rider problem)를 발생

200명이 사는 마을의 공용도로에 설치되는 가로등

* 설치의 실제 총편익: 200만원 (주민 당 만원의 효용가치 x 200명)
* 설치의 총비용: 100만원
* => 설치 시 마을의 경제적 후생: 100만원 증가
* => 사적 기업이 총비용 100만원을 들여 가로등을 설치한 후 주민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 있는가?
* => 주민들은 가로등의 효용가치가 천원에 불과하거나 혹은 아예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음(진정한 선호를 숨김)
* 무입승차자: 어떤 재화를 소비하여 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공공재 문제의 해결

가로등 무임승차자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들

1. 이 사업은 마을의 경제적 후생이 증가하므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
2. 그러나 무임승차자의 존재로 사적기업이 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손해(사적기업의 총비용은 100만원, 총수입은 20만원이거나 0)

* 시장에 맡겨 두면 가로등은 과소 제공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음
* 이는 가로등이 일단 설치되면 금전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기 때문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는 과소 생산됨)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

* 정부가 100만원을 들여 직접 가로수를 설치
* 마을주민 200명으로부터 각각 5천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충당
* 각 주민의 실제 효용은 만원이고 세금 5천원을 냈으므로 각 주민의 순편익은 5천원

공유자원의 문제 1

야생동물, 수산어종, 산림자원 등의 공유자원은

* 배체 불가능 : 원래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없어 배제 불가능
* 경한적 : 모든 자원은 유한하여 누군가 이를 소비했다면 다른 사람의 소비는 줄어들 수 밖에 없음 => 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해 모든 경제 주체 들은 이 공유자원을 앞다투어 소비하려 할 것이며 이 때 공유자원의 양은 급속히 감소

공유지이 비극 (Tragedy of the Commons)

* 사적으로는 효적 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적 인 과도한 소비로 인해 공유자원이 고갈되는 현상
* 과도한 케비어 소비에 의한 철같상어의 멸종 위기 과도한 가축 소비에 의한 호랑이의 멸종 위기

공유자원의 문제 2

공유자원 소비의 사적 효율성 원인

* 배제 불가능성에 의해 공유자원의 가격은 실질적으로 0이므로 가격을 지불해야 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

공유자원 소비의 사회적 비효율성 원인

* 경합성으로 인해 누군가 공유자원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
* 일반적으로 부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소비됨

공유자원 문제의 해결

공유자원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

1. 공유자원의 재산권 혹은 소유권 이 부재(배제 불가능)
2.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경합성)

해결방법

1. 소유권을 부여: 17C영국의 enclosure movement (개방경지나 공유지를 사유지로 전환)
2. 조세의 부과: 환경세, 탄소세 등을 부과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교정 (과다 소비를 교정)
3. 정부의 직접 규제: 야생동물 포획을 직접 규제

3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 비대칭의 정의

완천청보 (complete information):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이 직면한 선택과 관련한 정보들을 완전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태

* 완전경쟁 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자신들의 수요와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공급자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정보를 보유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

* 기업에 대한 정보: 금융기관 vs 대출기업

중고차의 품질에 대한 정보: 중고차 구매자 vs 중고차 판매자

건강에 대한 정보: 생명보험 회사(정보열위자) vs 생명보험 가입자(정보우위자)

* =>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 (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라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들올 야기

역선택과 레몬시장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정보열위 자가 관찰할 수 없는 속성으로 인해 정보 연위자 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

중고차시장의 문제를 레몬시장의 문제라고도 함

* 레몬 = 되풀이해 고장 나는 중고차(질이 낮은 중고차)
* 중고차와 관련된 정보(사고이력, 수리이력 등) 점보우위자 - 판매자 vs 정보 열위자- 구매자 => 정보의 비대칭성
* 구매자는 언제나 구매하려는 중고차가 레몬인지 의십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고 함
* 따라서 정보우위를 가진 판매자는 질 좋은 중고차를 시장에 내놓지 않으려 하며 그 결과 시장예는 레몬만이 존재
* 결국 질 좋은 중고차를 사고자 하는 구매자(정보 열위자 )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남

역선택의 또 다른 예: 보험시장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 보험의 대상(자동차 사고의 가능성 등)과 관련된 정보: 정보 우위자 - 보험가입자 vs 정보 열위자 - 보험사 => 정보의 비대칭성
* 정보가 완전하다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 전체의 평균적인 자동차 사고의 가능성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할 것
* 자동차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려 할 것이고 그 가능성이 낮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할 것
*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평균위험이 높아지므로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
* 결국 자동차 사고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정보 열위자 (보험사)에게 바람 직 하지 않은 결과

주인-대리인 문제와 도덕적 해이

주인 - 패리엔 문제 (principal-agent problem)

* 주인 - 대리인: 대리인에게 일을 시키는 자이나 대리인의 행동을 완전히 감시하지 못함(대리인 행동에 대해 정보열위)
* 대리인: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자이며 자신의 행동을 주인이 완전히 감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보 우위)

=>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주인과 대리인 간에 존재

=> 대리인은 주인이 원하는 수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problem)

* 주인 - 대리인 문제의 존재로 인해 불완전한 감시를 받는 대리인이 주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보험 시장에는 역선택 문제가 존재하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도 존재

* 보험 사(주인) 가 보험가입자(대리인)를 완전히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자가 자동차 운전을 더 부주의하게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같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음

* 역선택: 사람이나 재화의 숨겨진 속성 과 관련이 있고 거래 당사자들 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생 (부주의한 운전 자가 자동차보험올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음)
* 도덕적 해이: 사람들의 숨겨진 행위 와 관련이 있고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 (자동차 보험을 든 운전 자는 부주의할 가능성이 더 높음)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한 대응

1. 선별: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쪽의 사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정보열위자)
   1. 기업의 신입사원 공채시험, 직장 면접에서 후보자에게 추천서를 요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과거 사고기록 조사 등
2. 신호: 정보가 있는 쪽이 정보가 부족한 쪽에 사적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행위
   1. 중고차에 대한 품질 인증서와 보증서 제공, 높은 교육수준, 광고를 통한 정보 제공 등

**제 10주차: 거시경제학의 관심변수**

1 국내총생산

국가 경제규모의 측정의 목적

국가 경제규모 측정의 목적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국가 내의 경제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 => 그 국가경제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시계열적 변화)
* 한 시점에서 국가들 간의 경제규모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 => 국가경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분석하는 데 유용(횡단면적 차이)

경제의 순환관계와 경제규모의 계량화

* 한 국민경제에서 생산총액 = 지출총액 = 소득총액
* 생산총액 = 지출 총액: 기업의 생산총액은 가계의 지출 총액
* 지출총액 = 소득총액: 가계의 소비지출 총액은 소득총액
* 소득총액 = 생산총액: 기업의 소득 총액은 생산 총액

경제의 순환과 경제규모의 측정

텍스트, 도표, 스크린샷,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국내총생산: 생산총액의 측정

국내총생산

1. 일정기간동안 - 통상1년(혹은 1분기 즉 3개월)동안
2. 한 국가 안에서 – 국적을 불문하고 그 국가 국경내에서
3. 새롭게 생산된 – 골동품, 중고차 등의 가치 제외
4. 최종 생산물의 – 중간 생산물의 가치 제외
5. 시장가치의 총액 – (재화, 서비스의 양) x (재화, 서비스 가격)

최종 생산물의 = 중간 생산물의 가치 제외 = 부가가치(value added)만 포함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국내총생산의 분해: 지출측면

국내총생 산의 분해: 지출측면

GDP =C+I+G+NX

* 소비지출 (C): 새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가계의 지출 (신규주택에 대한 가계지출은 제외)
* 투자지출 (I): 공장, 건물, 기계 등 새로 생산된 생산적인 투입요소에 대한 기업의 지출과 재고 그리고 신규주택에 대한 가계의 지출
  + 재고(inventory): 새로 생산되었으나 팔리지 않은 재화의 비축 (미래의 생산을 위해 기업이 투자한 것으로 간주)
* 정부지출 (G):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출 (이전지출은 불포함)
* 순수출(NX);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 국내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해외구매 금액
  + 수입액: 소비. 투자. 정부지출 중 해외에서 생산된 금액

국내총생산의 지표로서의 단점

총생산 지표로서의 단점

*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불포함
  + 1. 가계생산액 누락: 목수가 자신을 위해 생산한 책상의 가치 누락
  + 2. 지하경제 규모 누락: 세금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시장을 통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누락
* 짧은 기간 내의 GDP 비료를 위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 (가계생산액이나 지하경제 규모가 크게 변화하지 않음)
*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GDP 비교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음

후생수준의 척도로서의 단점

* GDP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는 불포함
  + 1. 여가의 가치 누락
  + 2. 공해 등 생산의 부정적 외부효과 누락
  + 3. 범죄 등 사회문제의 변화 효과 누락
  + 4. 소득의 불평등에 대한 고려 누락
* 재화나 서비스의 질적 변화의 고려가 불가
* GDP의 규모가 한 국가의 후생수준을 절대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명목 GDP

명목 GDP: 당해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실질 GDP

실질 GDP: 기준년도의 가격으로 평가한 최종생산물 가치의 합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실질 GDP

실질 GDP는 그 기준연도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그 절대값이 달라짐

* 따라서 실질 GDP에 대하여 논의할 때는 주로 그 절대수준이 아닌 연도별 증가율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

2 물가와 인플레이션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활수준

물가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수준을 의미

* 시내버스의 명목요금은 1975년의 35원에서 2015년의 1300원으로 40년간 37.1배 증가
* 동일 기간동안 1인당 명목 GDP는 29만 8천 원에서 3079만 2천 원으로 103.3배 증가
* 적어도 시내버스와 관련된 국민 생활수준은 1990년에 가장 높음

물가수준을 측정하는 것은 국민생활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

물가지수의 측정

물가지수(price index): 기준시점의 물가수준을 100으로 표준화한 뒤, 비교시점의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지수

1. GDP Deflator: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이용하여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격동향을 측정하는 지표
2. 소비자 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 보편적인 가계가 구매하는 소비재의 가격동향을 측정하는 지표
3. 생산자 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위해 구매하는 원자재나 자본재의 가격동향을 측정하는 지표

인플레이션율: 특정한 두 연도 사이의 물가지수 증가율을 백분율로 측정한 것

물가지수: 1 GDP Deflator

명목 GDP의 변화: 최종생산물 수량변화와 가격변화를 모두 반영

실질 GDP의 변화: 최종생산물 수량 변화

GDP Deflator = (명목 GDP / 실질 GDP) \* 100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결국 GDP Deflator는 기준년도에 비하여 비교년도 최종 생산물의 평균적인 tkdd대적 anf가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수량을 비교년도로 고정하고 물가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

그러나 GDP Deflator는 그 정의상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격만을 반영하므로 수입물가의 변화는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

물가지수: 2 소비자물가지수

보편적인 가계가 소비하는 상품들과 그 수량(장바구니)을 선택한 후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의 해당 상품의 가격정보를 수집하여 작성

소비자물가지수 = 장바구니의 비교년도 구매비용(135) / 장바구니의 기준년도 구매비용(100) \*100

* 장바구니 비용을 계산할 때는 언제나 기준년도의 소비량을 사용 (수량을 기준년도로 고정하고 물가의 변화를 측정)
  + GDP Deflator를 계산할 때는 언제나 비교년도의 생산량을 사용 하였음에 유의 (수량을 비교년도로 고정하고 물가의 변화를 측정)
* 작년 CPI = 100, 올해 CPI = 135이므로 올해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에 비해 35% 상승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한계: 장바구니 구성을 기준년도로 고정하기 때문에 발생

* 언제나 기준년도의 소비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가상승이 있을 경우 그 정도를 과장하여 반영하는 경향
  +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상폼은 소비량이 줄게 되는데 줄어든 소비량을 반영하지 못함
*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 이를 과소하여 반영하는 경향
* 기술혁신 등에 의하여 과거의 상품이 새로운 상품으로 대체되는 경우 반영할 수 없음

물가지수: 3 생산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가계의 장바구니가 아닌 기업의 장바구니를 이용

* 즉 보편적인 가계가 구매하는 장바구니가 아닌 산업용 기계 등과 같이 기업이 구매하는 원자재나 자본재 등의 상품들로 장바구니를 구성
* 일반적으로 투입물의 가격이 오르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소비자들의 최종상품 구매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향후 소비자 물가지수를 예측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3 실업

실업과 고용

실업(unemployment): 일하고자 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태

* 생산가능인구(W): 일할 능력을 갖춘 인구(한국은 15~64세 인구)
* 경제활동인구(L): 생산가능인구 중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인구 (= 취업상태 인구(E) + 실업상태 인구(U))
* 비경제활동인군(N): 주부, 학생, 구직단념자(실망실업자) 등의 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L) / 생산가능인구(W) \* 100
* 실업률(unemployment rate) = 실업상태 인구(U) / 경제활동인구(L) \* 100 = U / (E+U) \* 100

실업과 고용

고용률(employment rate):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 고용물 = 취업자 (E) / 생산가능인구(W) \* 100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므로 실업자와 다름이 없는 구직단념자들을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 => 실업률의 정의는 실질적인 실업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
* 이에 따라 고용률을 실업률과 함께 실업 혹은 고용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시에 사용

지나치게 높은 실업은 개인 및 국가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

* 개인 소득감소는 빈곤의 문제와 결부되어 개인적 후생에 큰 영향
* 가용한 자원이 사용될 수 없어 국가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영향
* 따라서 실업은 한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실업의 구분

1.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자의 이주, 이직, 경력전환 등에 의해 발생
   1.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동안 발생
   2. 노동자들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적 실업이므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음
   3. 마찰적 실업만 존재하는 경우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이라 하며, 자연실업률이 0%가 될 수는 없음
   4. 결국 자연실업률은 장기적으로 한 경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최소한 실업률로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들 마다 서로 다른 노동 시장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자연실업률도 다름
   5. 정부는 기업의 구인/노동자의 구직정보의 제공 등을 활성화할 필요
2.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노동자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불일치에 의해 발생
   1. 쇠퇴하는 산업(단순 의류산업)에서 성장산업(IT 산업)으로의 이직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
   2. 경제구조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비해, 노동자들의 교육수준, 직업경험 등은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3. 비자발적 실업이며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4. 정부는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이 새로운 산업에 적응하도록 하는 인력개발, 직업기술교육 강화 필요
   5. 학자에 따라서는 구조적 실업도 자연 실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
3.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단기적 경기변동에 의해 야기되는 실업
   1. 단기적 경기변동은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GDP 성장률의 변화로 반영
   2. 일반적으로 GDP 성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순환적인 (cyclical)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경기순환이라 부름
   3. 경기호황: 기업의 사업확장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경기적 실업 감소 / 경기불황: 기업의 사업축소로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경기적 실업 증가
   4. 경기적 실업은 정부의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총수요확대 정책 등)에 의해 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는 실업
   5. 초기 노동시장균형은 점 E에서 달성(균형임금 w\*, 균형노동량 L\*)
   6. 경기불황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7. 이에 따라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이 하락하여 E’에서 새로운 노동 시장균형이 달성된다면, 실업은 발생하지 않음
   8. 그러나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은 일반적으로 하밤경직적 이어서 w\*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경기적 실업 발생 (L\* - Lc)

라인, 도표, 텍스트,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임금 하방경직성의 원인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등에 의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기도 하는데 이를 효율임금(ef랴챠두쵸 wage)이라 함

* 효율임금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게 책정된 임금
* 기업들이 효율 임금을 지불하는 원인은
  + 1. 높은 수준의 임금이 노동자의 이직을 줄이고 광고와 면접 및 신입 직원 훈련에 지출되는 경비를 절약
  + 2.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므로 현재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함

**제 11주차: 장기 경제성장**

1 경제성장의 중요성

경제성장의 의미

빈곤의 탈피를 위해서는 국가의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

* 2019년 기준 전세계 7억3천5백만 명(전세계 인구의 10.0%)이 하루에 1.9달러(빈곤선의 국제기준)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 1990년 빈곤선 이하 생활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35%였으므로 빈곤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개선
* 그러나 이는 1990년대 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 인도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달성된 것

빈곤탈피를 떠나서라도 모든 국가는 국민들의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중요하며 여기에 어떠한 정부 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

경제성장의 측정

한 국가의 경제성장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으나, 1인당 실질 GDP 증가율이 개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

* 명목 GDP 증가율이 아닌 이유: 명목 GDP의 변화는 수량의 변화와 가격의 변화를 모두 반영하므로 여기에서 가격의 변화를 제거한 실질 GDP 증가율을 사용
* 총 실질 GDP증가율이 아닌 이유: 인구증가율이 총실질 GDP 증가율을 상회할 경우 개인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악화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 총 명목 GDP 증가율

* 인플레이션율 -> 총 실질 GDP증가율
* 인구증가율 ->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세계 경제성장의 역사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급속한 경제성장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현상

* 3000년의 기간 중 첫 2800년 동안 1인당 GDP의 변화는 매우 미미
*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인 1800년대부터 1인당 실질 GDP의 의미있는 증가가 시작
* 급속한 경제성장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현상

70의 법칙

일반적으로 변수 A에 대하여 다음의 법칙이 성립

* 70 = (A의 연간 성장률, %) x (A가 두 배가 될 때까지의 연수)
* 따라서 1인당 GDP가 두배가 될 때까지의 연수는
  + 한국: 70/5.8 = 12.1년
  + 중국: 70/6.4 = 10.9년
  + 일본: 70/3.0 = 23.3년
  + 미국: 70/2.0 = 35.0년
* 즉 한국은 매 12.1년마다 1인당 GDP가 두 배가 되어 온 것임

성장률 차이의 효과

같은 초기조건에서 시작하였을 때 작은 성장률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활수준의 커다란 차이를 야기

2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1: 생산성과 생산요소

생산성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지표인 1인당 실질GDP는 곧 노동생산성을 의미

* 1인당 실질GDP는 국가 내 한 경제주체의 연간 소득액을 나타냄과 동시에 국민 한 사람(혹은 노동자 한 사람)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최종 생산물의 양을 측정
* 즉 경제성장은 노동 생산성(labor productivity) 증가의 과정으로 해석 할 수 있음

텍스트, 폰트, 라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총생산함수와 생산성

총생산함수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거시적 생산함수로서 국가경제 내에 존재하는 생산요소(input factors)의 양과 기술 수준이 생산량(실질 GDP)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나타냄

생산성 격차의 원천

Y/L = A f(K/L, H/L)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해석 => 1인당 생산량 = 기술수준 x f(1인당 생산요소)

* 생산함수의 기울기는 양(+)의 값: 1인당 생산요소를 많이 투입할수록 더 많은 1안당 산출물을 생산
* 생산요소의 투입이 증가할수록 생산함수의 기울기는 완만: 1인당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은 체감

생산요소의 변화는 동일한 생산함수 상에서의 변화로 나타남

* 기술수준의 변화는 생산함수 자체의 변호로 나타남

생산성 격차의 원천

두 국가의 생산성 격차는 생산요소 축적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혹은 두가지 모두에 의하여 설명 가능

* 기술수준이 같다면 1인당 생산요소가 많이 축적된 국가의 1인당 생산량이 많음
* 1인당 생산요소 축적 수준이 같다면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1인당 생산량이 많음

텍스트, 라인, 그래프,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생산요소의 축적

Y/L = A f(K/L, H/L)

1.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이용되는 장비와 구조물의 양
   1. 물적자본은 기업들의 투자행위로부터 형성
   2. 따라서 투자의 활성화는 1인당 물적자본을 증가시켜 1인당 생산량, 즉 노동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원인
2. 인적자본: 노동자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지식, 경험, 능력 등을 통칭
   1. 노동자의 교육수준, 직업훈련, 직무경험 등에 의존
   2. 따라서 교육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 기업차원에서의 직업훈련의 활성화는 1인당 인적자본을 증가시켜 1인당 생산량, 즉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기술수준의 향상

Y/L = A f(K/L, H/L)

* A는 한 경제에 존재하는 기술수준 혹은 기술지식(technological knowledge)을 통칭하며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력에 의존
* 따라서 R&D 활동 등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투자 활성화는 그 경제의 기술지식을 향상시켜 1인당 생산량, 즉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 그러나 1인당 생산량(노동생산성), 1인당 생산요소(물적자본의 양, 인적자본의 양) 등과는 달리 이러한 기술수준 A는 직접적으로 관찰되거나 측정할 수 없는 변수

기술수준의 측정

Y/L = A f(K/L, H/L)에서…

* 총생산함수 f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다면, Y/L과 K/L 및 H/L은 모두 측정가능한 변수이므로 A를 측정할 수 있음 A = (Y/L)/f(K/L, H/L)
* 만일 한 국가의 생산함수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 국가의 두 시점에서의 노동생산성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

텍스트, 폰트, 라인,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1인당 생산량의 비율 = 기술수준의 비율 x 1인당 생산요소 축적량의 비율 => 두 시점 간 1인당 생산량의 차이를 기술수준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과 생산요소 축적량의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발전회계라 함

기술수준의 해석

Y/L = A f(K/L, H/L)에서..

* 텍스트, 폰트, 화이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이떄 A의 변화율은 1인당 생산량의 변화율 중에서 1인당 생산요소의 축적에 의해 설명되고 남은 부분(residuals)을 의미
* A는 노동 뿐만 아니라 여타 생산요소의 축적을 모두 감안한 것이므로 이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라고도 부름

생산요소 VS 생산성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은 체감하므로 생산요소의 축적에 따른 경제성장은 언젠가 그 한계를 맞이할 수 밖에 없음

* 한계생산 체감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진보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 => 기술진보는 기업의 끊임없는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가능

라인, 도표, 텍스트,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3 경제성장의 결정요인 2: 정부의 역할

경제성장과 정부정책

정부는 국가경제의 성장률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부정책을 수행

* 저축과 투자의 촉진과 외국 자본의 유치
* 교육의 활성화와 건강 증진
* 재산권 확립과 정치적 안정
* 자유무역의 촉진
* 연구개발의 장려

그러나 정부예산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여타 정책들(예를 들어 소득재분배등을 통한 복지정책 등)과의 상충관계가 존재

*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문제는 규범적인 가치판단의 문제임과 동시에 응용경제학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이해

저축과 투자

저축과 투자는 높은 상관관계

* 일반적으로 저축 – 투자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음

소비-저축 간의 상충관계는 소비-투자 간의 상충관계로 연결

* (저축 – 투자를 통한) 미래의 소비를 늘리려면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 함

외국자본의 유치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자본축적과 장기 경제성장을 도모

외국자본의 투자 유형

*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자본이 기업을 직접 소유하거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취득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국인 포트폴리오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외국자본이 국내기업 재원조달의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

장점: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경영할 경우 경영기술, 생산기술 등이 국내의 다른 기업들에게 이전되는 긍정적 외부효과 발생

단점: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국가들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과다한 조세감면등의 특혜를 제공

교육과 건강

교육과 직업훈련은 인적 자본 형성의 과정이며 물적자본의 형성 못지 않게 중요

* 국가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면 노동자들이 보다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으며 새로운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용이
*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기초교육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

노동자들이 건강할수록 생산성이 높으며 따라서 건강 및 보건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직접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

* 건강 문제는 교육기회의 부족과 함께 저소득국가에서 인적자본의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재산권의 확립 등 정치 및 경제제도의 안정

재산권(property right)의 확립: 경제주체들이 자신이 소유한 자원에 대해 적절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

* 경제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확립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가 어려움

마찬가지로 정치 및 경제제도(political and economic institution)의 안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의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파단하므로 투자율이 낮음

* 수 많은 경제성장 결정요인들 중에서 제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존재

자유무역의 촉진

세계화의 촉진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

* 세계화는 선진국에게만 이들을 주고 개발도상국에게는 손해를 끼쳐 왔으며 따라서 전세계적인 양극화(polarization)를 가져왔다는 견해도 존재
* 그러자 적어도 대외지향적(수출지향적) 무역정책(outward-oriented trade policies)을 추진하였던 국가들(한국, 중국 등)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이룩한 것만큼은 사실

자유무역의 촉진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세 가지 경로

* 생산의 전문화(specialization)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 규모의 경제하에서 시장확대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
* 수출-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연구개발투자의 전이(R&D spillover)

연구개발 투자의 촉진

대부분의 기술진보는 민간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로부터 발생

* 정부는 직접 공공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민간에 연구개발 투자비를 지급, 세제감면, 특허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기도 함

**제 12주차: 소득과 물가의 결정**

0 들어가기

총수요-총공급 모형

총수요-총공급 모형은 앞서 학습한 거시경제학의 주요 변수들 (GDP, 물가, 실업 혹은 고용)이 어떠한 상호연관 관계를 가지면서 결정되는가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틀

* 직관적으로.

경기호황: GDP상승 물가상승 실업하락 고용상승

격기불황: GDP하락 물가하락 실업상승 고용하락

* 총수요-총공급 모형은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설명하기에 적합

거시경제학에서의 ‘총(aggregate)’의 의미는 한 국가경제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모든 상품시장에서의 수요 혹은 공급을 합산하였다는 개념

* 미시경제학에서의 시장수요/공급은 단일 상품시장에서 각 가격 수준에 대응하는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의 수요와 공급을 의미

1 총수요곡선

총수요곡선

*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물가)과 모든 상품에 대한 전체 수요(총수요)사이의 관계
* 단위가 서로 다른 상품들(예: 쌀 vs 자동차)의 수요량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이때의 총수요는 각 수요량을 시장가치로 환산한 후 합산하되 시장가치는 기준년도의 가격을 적용 (결국 이는 실질 GDP특히 실질 지출총액의 개념과 일치)
*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하나 시장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 때문
* 단일 시장에서의 가격과 달리 여기에서의 물가는 측정되는 모든 재화의 평균적인 가격을 의미

총수요곡선: 우하향

GDP의 지출측면에서의 분해: GDP = C + I + G + NX

*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GDP의 지출측면에서의 분해: GDP = C + I + G + NX

* 순수출(NX): 수출품의 물가상승(수입품 물가의 상대적 하락)

정부지출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 GDP의 모든 지출구성요소들 (C, I 및 NX)은 물가와 음(-)의 관계를 가짐

* 따라서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수요곡선의 이동

GDP의 지출측면에서의 분해: GDP = C + I + G + NX

* 총수요의 구성요소에 영향을 주는 비가격변화(non-price change)가 발생하면 총수요곡선 자체가 이동

총수요 증가(AD의 우측 이동)요인

1. 소비: 미래소득에 대한 높은 기대로 저축감소 정부의 소득세 감세정책
2. 투자: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 정부의 법인세 감세정책
3. 순수출: 외국의 경제성장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관세 인하

총수요 감소(AD의 좌측이동)요인

1. 소비: 미래소득에 대한 비관적인 기대로 저축증가 정부의 소득세 증세정책
2. 투자: 경기침체에 대비한 기업의 지출 감소 정부의 법인세 증세정책
3. 순수출: 외국의 경기침체 한국산 상품에 대한 외국의 관세 인상

정부지출(G)은 정부가 이를 정책적으로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 예를 들어, 대규모 사회간저밪본 건설을 통한 정부지출의 확대는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
* 정부의 정부지출 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틀어 정부의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 함

단기총공급곡선

총공급곡선(aggregate supply curve)

* 한 경제 내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평균적인 가격(물가)과 기업들이 생산하는 전체 생산량(총공급)간의 관계

단기총공급곡선(short-run aggregate supply curve)은 우상향하는데 미시경제학에서의 시장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 때문에

* 이윤 = 수입 – 비용 =>최종재의 물가수준이 상승할 때 투입요소의 가격이 동일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비용의 상승이 적어 이윤이 증가
* 이윤이 증가하므로 기업들은 기꺼이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려 함

단기총공급곡선

투입요소가격의 비신축성

* 최종재의 물가수준이 상승하더라도 단기에서 투입요소가격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현상을 투입요소가격의 비신축성이라 함
* 이러한 투입요소가격의 비신축성은 계약 혹은 관행의 존재에 기인
* 예를 들어 노동에 대한 임금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원자재등의 중간투입요소들도 1년 이상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
* 반면 최종생산물에 대해 장기 계약을 맺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상

장기총공급곡선

장기총공급곡선은 수직

* 장기는 투입요소의 가격이 경제상황의 변화 즉 물가의 변화에 완전히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
* 최종재 물가가 상승하면 장기적으로 임금, 임대료 원재료 가격 등도 인상될 것이며 따라서 기업의 이윤은 가격인상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
* 따라서 기업들의 생산량도 가격인상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
* 수직인 장기공급곡선은 물가가 한 경제의 장기공급량을 결정하지 못함을 의미 => 그렇다면 무엇이 장기공급량을 결정하는가?

장기총공급곡선

잠재 산출량(potential output), 자연 산출량(natural rate of output), 잠재 GDP(potential GDP)

* 잠재산출량은 장기총공급무선이 나타내는 경제전체의 산출량인데, 이는 경제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요소들의 용량이 완전히 가동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산출량 수준을 의미
* 잠재산출량은 실업률이 정상상태 혹은 자연실업률과 일치할 때의 산출량 수준으로 정의되기도 함
* 따라서 잠재산출량은 그 경제에 존재하는 생산요소의 양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

장기총공급곡선의 이동

장기의 잠재산출량은 물가수준과 관계없이 이용가능한 생산 투입요소의 양과 기술수준 등에 의해 결정

* 따라서 장기총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변화할 때 이동

결국 경제성장은 장기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안정적으로 밀어내는 과정, 즉 잠재산출량의 증가를 의미

* 이러한 잠재산출량의 증가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발견이나 기존 생산요소의 축적 및 기술수준의 향상 등에 기인

장기총공급곡선의 우측이동 사례 (경제성장)

* 기술: 기술혁신으로 동일한 양의 생산요소로 더 많은 생산 가능
* 자본: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의한 자본축적
* 노동: 이민을 통한 노동공급 증가
* 교육: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자원: 새로운 에너지의 발견

장기총공급곡선의 좌측이동 사례

*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산업전체에 경제활동 인구 혹은 고용이 감소
* 기후변화로 인한 경작가능 토지의 감소

장기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모든 요인들(생산요소의 축적, 기술향상 등)은 단기총공급곡선도 이동시킴

* 그 이외에 단기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추가적인 두 가지 요소는 생산비용과 예상물가수준의 변화

1. 생산비용의 변화: 같은 물가수준에서 생산비용이 변화하면 단기총공급곡선이 이동

* 예를들어 유가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기업의 산출량이 감소

1. 예상물가수준의 변화
   1. 예상물가수준의 변화는 물가수준의 실제 변화(actual change)가 아닌 기업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혹은 dPkd)의 변화
   2. 기업의 예상물가수준이 상승

* 현재의 물가수준보다 미래의 물가수준이 더 높을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의 물가수준에서 기업은 산출량을 감소시킴
* 단기총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

3 거시경제균형과 경기변동

거시경제균형: 단기균형과 장기균형

단기균형: 총수요곡선과 단기총공급곡선의 교차점

장기균형: 총수요곡선 – 단기총공급곡선 – 장기총공급곡선인 교차점

* 장기균형은 단기 생산량수준이 장기 잠재생산량과 같을 때 달성
* 이때 균형물가수준과 균형생산량수준이 결정

경기변동

단기균형 생산량 > 장기균형 생산량: 경기호황(boom)

단기균형 생산량 < 장기균형 생산량: 경기불황(recession)

* 단기균형점이 장기균형 생산량을 중심으로 변동할 때 경기변동이 발생

라인, 도표, 그래프,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참고: 한국의 경기변동

잠재성장률: 장기균형산출량의 성장률

*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경우 경기호황이라 하며 낮은 경우를 경기불황이라 함

텍스트, 폰트, 라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총수요 증가에 따른 단기효과 및 장기조정

단기효과

* 총소비 증가
* 총수요곡선 우측 이동(AD1 -> AD2)
* 단기 균형의 이동 (E1 ->E2)
* 경기호황: 산출량은 잠재적 산출량을 초과, 물가 상승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충수요 증가 따른 단기 및 장기조정

장기조정

* E2는 단기균형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불가
* 물가상승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산비용도 상승: SRAS의 좌측이동
* E3에서 장기균형 및 단기균형이 동시에 달성
* 총수요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만 상승시키며 산출량은 불변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총수요 감소에 따른 단기효과 및 장기조정

단기효과

* 총소비 감소
* 총수요곡선 좌측 이동(AD1->AD2)
* 단기균형의 이동(E1->E2)
* 경기불황: 산출량은 잠재적 산출량을 하회, 물가하락

라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장기조정

* E2는 단기균형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속불가
* 물가하락에 따라 장기적으로 생산비용도 하락: SRAS의 우측이동
* E3에서 장기균형 및 단기균형이 동시에 달성
* 총수요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물가만 하락 시키며 산출량은 불변

라인, 도표, 그래프,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단기총공급 변화에 따른 단기효과 및 장기조정

단기효과

* 일시적 공급충격
* => 단기총공급곡선 좌측 이동(SRAS1->SRAS2)
* => 장기균형의 이동(E1->E2)
*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산출량은 잠재적 산출량을 하회 물가 상승

라인, 도표, 그래프,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장기조정

*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 물가상승과 고용 감소가 동시에 발생
* => 물가-임금의 반복적 상승(물가-임금 악순환: wage-price spiral)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나 종국적으로는 실업률 증가(고용의 하락)에 따라 임금은 하락
* => 장기 및 단기균형은 E1으로 회귀(산출량과 물가 모두 불변)

라인, 도표, 평행,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제 13 주차 : 재정정책**

1 단기경기변동과 재정정책

재정정책

재정정책(fiscal policy):정부지출과 조세 수입 규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

* 재정정책은 가계와 기업들에게 필요한 공공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 수행하기도 하지만 단기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수행
* 재정정책은 총수요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방식을 통해 한 경제의 소득 수준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

총수요 = C + I + G + NX

1. 정부지출의 조정
   1. 직접효과: G의 변화
   2. 간접효과: C와 I에 영향 (승수 효과, 구축 효과)
2. 조세수입의 조정
   1. 간접효과: C와 I에 영향(가계의 가처분소득 혹은 기업의 가처분잉여에 영향)

재정정책의 유형

확장적 재정정책(expansionary fiscal policy); 경기불황에 대응

*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세금을 인하
* 산출량은 증가(실업은 감소) 하나 물가수준은 상승

간축적 재정정책: 경기 과열에 대응

* 정부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세금을 인상
* 산출량은 감소하고 물가수준은 하락

라인, 도표,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재정정책에 대한 논쟁

거시경제의 단기적인 불균형 상태는 임금 등 생산비용의 변화에 따라 장기균형으로 조정되어 갈 것 그 과정이 더디고 고통스러울 수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경기변동에 대응한 경기안정화 정책을 수행

정부가 총수요를 조절하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존재

1. 찬성론자: Keynes 학파
   1. 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2.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을 사용하여 재량적인 경제안정화 정책(discretionary stabilization policy)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
2. 반대론자: Chicago 학파
   1. 정부정책은 시차 (time lag)의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안정화 정책은 오히려 경기변동을 악화시킬 수 있음
   2. 경기의 단기적 변동은 경제의 자기치유능력에 의해 저절로 해결되도록 해야 함

재정정책의 시차

경제안정화 정책의 찬성론자라 하더라도 재정정책 수행에 따르는 시차의 문제는 인정

1. 정보시차
   1. GDP, 물가, 실업 등 거시경제변수의 통계는 일반적으로 3개월 주기로 집계
   2. 재정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은 이미 수 개월 전의 거시경제에 관한 정보
2. 정책형성시차
   1. 행정부에 의해 결정된 재정정책 방향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시간
3. 집행시차
   1. 재정정책이 집행된 후 실제로 총수요가 변동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동안정화 장치

자동안정화 장치 (automatic stabilizers): 정책입안자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나 정부지출 정책

* 정부의 인위적 개입인 재량적 정책 (discretionary policy)과는 달리 특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시차에 의한 문제가 덜 심각

1.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조세
   1. 소득세 체계는 일반저그오 소득증가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방식
   2. 경기 과열 => 소득증가(감소) => 높은 세율의 소득자 증가(감소) => 조세수입 증가(감소)효과 => 총수요 증가(증가)효과

텍스트, 폰트, 번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자동안정화 장치

1.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정부지출
   1.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제도는 자동안정화 장치로서 작동하는 정부지출의 한 예
   2. 경기불화(과열)
      1. 사회복지제도 수급자의 증가(감소)
      2. 정부지출이 증가(감소) 효과
      3. 총수요 증가(감소) 효과

소득-지출 모형

(총생산 =) 총소득 = 총지출에서 총소득과 총지출의 거시경제적 동일성을 이용하여 총수요의 구성하는 항목이 변할때 총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분석

* 소득-지출 모형에서는 총생산(총공급) 측면은 고려하지 않음
* 소득-지출 모형은 추후에 총생산(총공급)까지도 동시에 고려하는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재정정책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모형으로 이해

소득-지출 모형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소득-지출 모형



* 조세,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이 어떤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위의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와 같음
* 

소득-지출 모형에서의 균형은 Y총지출 = Y총소득이 만족되는 점에서 달성되며 이는 위의 식솨 45도 선이 만나는 점 E에서 달성

이점에서 총소득과 총지출이 일치

* 이는 소득-지출 모형 균형 하에서의 총수요(AD)로 해석할 수 있음: AD = Y총지출 = Y총소득

텍스트, 라인, 도표,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소득-재출모형의 균형

텍스트, 폰트, 라인,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승수효과의 도출

소득-지출 모형의 균형 상태에서…

* 폰트, 텍스트, 친필,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정부가 정부지출을 1원 증가시키면 총수요(AD)는 1/(1-b)만큼 증가하는데 이를 정부지출승수(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라 함

*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승수는 총수요에 대한 정부지출의 한계효과
* 따라서 정부지출이 change of G만큼 증가할 때 총수요의 변화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

폰트, 도표, 라인, 원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승수효과의 도출

폰트, 텍스트, 화이트, 라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 0<b<1이므로 1/(1-ㅠ)>1: 정부지출승수는 항상 1보다 큼
*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이 .6일 때 정부지출승수는 2.5
* 이는 정부지출이 1원만큼 증가할 때 총수요가 2.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총수요2.5 증가 = 정부지출 1증가 + 소비지출 1.5증가)

정부지출의 증가는 정부지출 증가 자체에 의한 총수요 증가뿐 아니라 추가적인 소비지출 증가에 의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 함

승수효과의 이해

직관적 설명: 누군가의 지출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

*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1억원 만큼 정부기자재 구매
* 정부기자재 판매업자의 소득 1억원 증가하고 이 중 .6억원 소비 지출(한계소비성향 = .6가정)
* .6억원은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고 이 중(.6 \* .6)억원 소비지출
* 이러한 현상이 연쇄적으로 무한히 반복되게 되므로 총수요 증가는 정부지출 증가 = 1억원
* 소비지출 증가 = .6억원 + (.6)^2억원 + (.6)^3억원 + …

총수요 증가 = 1/(1 \* .6) 억원 = 2.5억원

* 결국 정부지출의 증가는 정부지출승수에 정부지출 증가분을 곱한 것만큼 총수요를 증가시킴

승수효과의 이해

그래프에 의한 설명

* 정부지출의 증가는 각 물가수준에서
  + 1 정부지출 증가분 만큼 총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며
  + 2 추가적인 소비지출의 증가를 통해 총수요곡선을 다시 한번 우측으로 이동

라인, 도표, 평행,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조세의 승수효과



* 정부지출승수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조세승수(taxation multiplier)를 도출할 수 있음
* 조세의 총수요에 대한 한계효과인 조세승수는 -b/(1 – b)
* 한계소비성향(b)이 .6일 때 조세승수는 -1.5
* 이는 조세를 1원만큼 감세할 때 총수요가 1.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

정부지출을 1억원 늘리면 총수요가 2.5억원 증가하고

조세를 1억원 감세하면 총수요가 1.5억원 증가

* 규모가 동일한 경우 정부지출의 효과가 조세감세의 효과보다 더 큼
* 정부지출은 정부지출의 직접효과와 소비지출에 대한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조세감세는 소비지출에 대한 간접효과만 존재하기 때문

정부지출의 민간투자에 대한 효과

정부지출은 민간부문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1. 긍정적 효과
   1.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부지출은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2. 부정적 효과
   1. 정부지출은 조세수입으로 충당되기도 하지만,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이루어지기도 함
   2. 과도한 정부차입은 자금의 가격이 ㄴ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음
   3. 이자율 상승은 결국 기업의 투자비용을 상승시키므로 기업의 투자가 감소할 가능성 존재
   4. 민간투자가 정부지출에 의해 감소하는 효과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 함

3 재정정책의 효고와 정부부채

총수요-총공급 모형 하에서 재정정책의 효과

소득-지출 모형을 통해 물가수준이 주어진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change of G만큼 증가하면 총수요가 승수효과를 반영한 {1/(1-b)} \* change of G 만큼 우측으로 이동함을 분석

* 그러나 이러한 승수효과는 총수요 측면만을 고려한 것임

재정정책의 최종적 효과는 총수요-총공급 모형을 통해 분석해야 함

* 새로운 단기균형은 E2에서 달성되므로 산출량의 증가는 승수효과에 의한 총수요 증가분보다 작음
* 이는 P1의 물가수준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

라인, 도표, 그래프,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만일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상승시킴으로써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한다면 최종적인 정부지출 증가 효과는 더욱 축소

* 따라서 총수요-총공급 모형 하에서 재정정책의 효과는 (P1, Y1)에서 (Y3, P3)로의 변화

라인, 도표, 그래프,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정부지출의 원천

정부지출의 원천은 기본적으로 조세수입액

* 한 횐계연도 동안 정부지출 규모가 소제수입액과 일치할 때 균형 재정(balanced budget)을 이루었다고 말함
* 재정적자(budget deficit):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지출 > 조세수입

재정흑자(budget surplus): 한 회계연도 동안 정부지출 < 조세수입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적자분만큼의 자금을 차입하여 충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로 정부가 국공채를 발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를 민간 혹은 해외정부 등이 매입할 경우 정부는 미리 약정된 이자율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약속
* 일반적으로 국공채는 정부가 이자지급과 원금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인식

정부부채

정부가 재원조달을 위해 국공채 등을 발행하여 재정적자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정부부채가 발생

* 재정적자가 누적된 합계가 정부부채 규모이며, 이는 정부가 갚아야하는 부채의 총액을 의미
* 관도한 규모의 정부부채는 결국 그 국가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재정적 부담이므로 적절한 재정건전성을 우지해야 할 필요

EU 국가이면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그리스는 과도한 정부부채로 인해 결국 국가부도의 상황에 몰리는 경재위기를 겪은 바 있음

* 2010년: EU, IMF 등에 1차 구제금융 요청 (2011.7까지 5차례 지원)
* 2015년 7월 1일: 국가부도를 의미하는 모라토리움(moratorium)선언

정부부채의 편익과 비용

정부부채의 편익

1.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
2.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투자활동 촉진 (교육 및 사회간접자보 등에 대한 투자)

정부부채의 비용

1. 직접비용: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
2. 간접비용: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구축효과 / 세대간 불평등 문제(현 세대의 정부에서 과도한 정부 부채가 발생할 경우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

국가별 정부부채 규모

주요 OECD 국가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2020년 추정치, %)

* 일본은 237.6%로서 일본이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약 2.4배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 한국은 43.4%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님

텍스트, 스크린샷, 라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한국의 정부부채 규모 추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라인, 그래프, 스크린샷,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제 14 주차: 금융시장

금융시장(financial market)

* 여유자금을 남에게 빌려 주고자 하는 경제주체(자금 공급자)와 이 여유 자금을 빌려 쓰고자 하는 경제주체(자금 수요자)들을 연결해 주는 시장

1. 직접 금융시장
   1. 자금수요자(주로 기업)가 발행하는 본원증권(primary security)을 자금공급자(주로 가계)가 직접 매수하여 자금이 조달되는 방식
   2. 채권 시장: 기업이 일정기간 후 정해진 원금과 그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가 발행/거래

주식 시장: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증서가 발행/거래

1. 간접 금융시장
   1.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은행등 금융중개기관이 개입하는 방식
   2. 은행을 통한 예금과 대출

금융시장의 기능

1. 자금의 효율적인 중개
   1. 자금수요자들의 신용도와 향후 수익성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이 중개되오록 조정
2.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
   1. 유동성은 어떤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
   2. 금융시장에는 다수의 자금수요자들과 자금고읍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의 공급이 가능
3. 투자에 따르는 위험의 분산
   1. 일반적으로 은행예금은 저위험-저수익 (low risk – low return)구조이며 주식은 고위험-고수익(high risk-high return)구조
   2.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의 분산(diversification)이 가능

금융의 거시경제적 해석

국내총소득 = 국내총지출: Y = C(소비지출) + I(투자지출) + G(정부지출)

* 분석의 편의를 위해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가정하여 순수출(수출액-수입액)은 제외(NX = 0)

Y – C – G – I

* S = Y – C – G: 총소득에서 소비지출과 정부지출을 뺀 나머지이며 이를 국민저축(national saving)혹은 저축이라 함
* S = I: 국가 전체적으로 저축은 투자와 일치

S = Y – C – G = (Y – T – C) + (T – G)

* Y – T – C: 가처분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민간 저축,private saving)
* T – G:조세수입에서 정부지출을 뺀 것(정부저축, public saving)
* 국민저축 = 민간저축 + 정부저축

금융의 거시경제적 해석

S = I

* 국가 전체적으로 저축(자금의 공급)은 투자(자금의 수요)와 일치
* 얼마나 저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투자를 할 것인가의 의사결정을 조정해 주고 이 두 경제행위를 연결시켜 주는 시장이 금융시장
* 이 식으로부터 금융시장에 대한 간단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를 대부자금시장 모형이라고 함

대부자금시장 모형

대부자금시장(market for loanable funds)

* 대부자금이란 저축자들이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려는 자금과 투자자들이 저축자들로부터 빌리려는 자금을 동시에 의미
* 실제로는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등 다양한 금융시장이 존재하지만 이를 통틀어 대부자금시장이라고 일반화한 개념
* 대부자금시장도 시장이므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
* 대부자금의 수요자: 투자자(주로 기업)

대부자금의 공급자: 저축자(주로 가계)

* 대부자금의 가격은 이자율(interest rate)

: 대부자금의 수요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대출을 함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임과 동시에 대부자금의 공급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저축을 함에 따라 받는 수익

: 10억원에 대해 1년 동안 10%의 이자율 => 원금 10억원 + 이자 1억원

대부자금시장 모형

대부자금시장의 수요와 공급

* 수요곡선은 우하향: 이자율 상승 => 대출비용 상승, 대부자금 수요량(투자) 감소
* 공급곡선은 우상향: 이자율 상승 => 저축수익 상승, 대부자금 공급량(저축) 증가

대부자금시장의 균향

* 수요와 공급 즉 투자와 저축이 일치할 때 균형 이자율 및 균형 대부자금 규모가 결정
* 대부자금시장 모형은 한 국민경제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여주는 모형

라인, 폰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대부자금시장 모형

대부자금시장 균형의 변동

1. 수요곡선의 변동
   1. (예) 현재 투자기회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 => 모든 이자율 수준에서 투자 증가, 대부자금 수요곡선의 우측 이동, 이자율 상승
   2. 라인, 도표,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2. 공급곡선의 변동
   1. (예) 사회복지 정책의 도입으로 저축의 필요성 저하 => 모든 이자율 수준에서 저축 감소, 대부자금 공급곡선의 좌측 이동, 이자율 상승
   2. 라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화폐의 기능

화폐(money): 재화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구매하는데 이용되는 자산의 집합

1. 가치의 저장(store of value) 기능: 시간이 흘러도 명목가치가 그대로 저장되는 기능
   1. 화폐의 실질가치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 변화
2. 교환의 매개 기능: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
   1. 물물교환이 갖는 거래비용에 있어서의 비효율을 제거
3. 가치의 척도 기능: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단위를 제공
   1.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일관된 정보를 제공

화폐의 창출

은행제도는 부분 지급준비제도 라는 것을 통해 한 경제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화폐보다 더 많은 양의 화폐를 창출

* 요구불예금(demand deposit): 예금자가 사전통지 없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종류의 은행예금
* 지급준비금: 은행이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
* 지급준비율 = 지급준비금 / 요구불예금
* 부분 지급준비제도: 지급준비율을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제도로서 은행제도는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요구 불예금을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대출
* 모든 저축자가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부분 지급준비제도가 가능

화폐창출의 과정

지급준비율 = 100%인 경우 (완전 지급준비제도)

* 저축자가 100억원을 은행에 요구불예금으로 예치
* 은행은 100억원 전액을 100억원 지불준비금으로 보유
* 저축자가 원래 현금(혹은 화폐)의 형태로 가지고 있던 100억원이 요구불예금 100억원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 (요구불예금은 언제나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
* 경제 내에 존재하는 화폐의 양은 100억원 화폐 (추가적 창술 X)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화폐창출의 과정

지급준비율 = 10%인 경우

* 저축자가 100억원을 은행A에 요구불예금으로 예치
* 은행A는 10억원의 지불준비금 보유하고 나머지90억원 대출
* 90억원 대출받은 기업은 원자재를 구매하고 원자재 판매자는 이를 다시 은행B에 예치
* 은행B는 9억원의 지불준비금을 보유하고 나머지 81억원 대출
* 81억원 대출받은 또 다른 투자 자는 기계류를 구매하고 그 판매자는 이를 다시 은행C에 예치
* 이 과정이 끝없이 지속될 경우 경제 내에 존재하는 화폐의 양 = 100 + 100 x (1-.1) + 100 \* (1 - .1)^2 + … = 100 \* 10 = 1000억원

텍스트, 스크린샷, 폰트, 도표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초기에 존재하는 화폐량이 M,이고 부분 지급준비제 도에 의한 지급준비 을이 R일 경우 은행제 도의 화페창출 과정을 거친 후의 화폐량(M0)은

* 텍스트, 폰트, 라인, 타이포그래피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이 때 1/R올 통화승숙 (money multiplier)라 함

* 초기에 존재하는 화폐량은 중앙은행이 찍어낸(발권한) 화폐량
* 통화승수 는 결국 중앙은행이 발권한 회폐량 대비 은행체계의 대출행태 를 통해 창출된 화폐량의 배수

화폐의 발권량(M0)이나 통화승수(즉 지급준비율, R)를 조절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중앙은행 이라 하며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경제전체의 화폐량(화페공급)을 조절

중앙은행

중앙은행 (central bank): 국가의 통화공급과 은행체계의 기능을 조정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

* 한국에서는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이 이 역할을 수행

중앙은행의 역할

1. 통화정전 (monetary policy)의 수행: 특정한 거시경제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화폐공급량 등을 조절하는 행위
2. 최충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 경제위기 등으로 저축자들이 예금을 알시에 찾아가려는 자태 (뱅크런, bank-run)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일반은행들에게 최종적인 대부자로서 대출을 수행할 수 있음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방식

1. 지급준비율정책: 지급준비율 감소 => 통화공급량 증가
2. 재할인율정책 (discount rate policy): 재할인율 감소 => 통화공급량 증가
   1. 재할인율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대출할 때의 이자율
   2. 재활인을이 낮아지면 시중은행 이 빌려가는 대출이 증가하므로 통화공급량이 증가
3. 공개 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국공채 시장에서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 => 통화공급량 증가
   1. 채권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

통화정책의 유형

1. 확장적 동화정책 (expansionary monetary policy)
   1. 화페공급을 늘립으로써 홍순 를 창시키고자 하는 정책
2. 건속적 통화정책 (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
   1. 화폐공급을 줄임으로써 총수요 를 강소 시키고자 하는 정책

*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총수요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므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들어 총수요관리 정책이라고도 부름

유동성선호 모형

유용성선호 모형 (liquidity-preference model)은 Keynes에 의해 제안된 모형으로서 이자율과 통화정책 간의 관계를 설명

* 유동성선호라는 모형에서는 유동성(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완벽히 통제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유동성(화폐)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둠
* 유동성선호 모형에서는 유동성(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완벽히 통제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유동성(화폐)에 대한 수요에 초점을 둠
* 대부자금시장 모형과 마찬가지로 이자율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모형
  + 대부자금시장 모형은 이자율이 투자와 저축을 일치시키는 자금의 균형 가격이라고 설명하는데 반해, 유동선선호 모형은 이자율을 일정기간동안 유동성(화폐)을 보유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으로 설명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를 수요(보유)하는 목적

1. 거래적 동기(transaction motive): 일상적 거래를 위한 화폐 보유
   1. 소득 증가, 물가수준 증가 ->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보유 증가
2. 예비적 동기 (precautionary motive):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화폐 보유
   1. 경제위기의 가능성 증가 => 예비적 동기에 의한 화폐보유
3. 투기적 동기 (speculative motive): 자산의 한 형태로서 화폐보유
   1. 이자율 증가 => 채권보유유리/화페보유불리 -> 화페보유 감소

화폐에 대한 수요

유동성선로 모형에서는 경제주체들이 화폐 혹은 채권을 자산으로서 선택할 수 있다는 투기적 동기를 강조

* 화폐: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높으나 이자가 없음
* 채권: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낮으나 이자를 지급
* 채권 대신 화폐를 보유한다는 것은 이자를 포기하고 유동성을 선호한다는 의미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수요는 투기적 동기에 의해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

* 이자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화폐수요 증가

이자율 이외의 다른 요인이 변하면 화폐수요 자체가 변화

* 물가수준 증가, 국민소득 증가 => 화폐수요 증가 (거래적 동기)
* 경제위기 예상 증가 => 화폐수요 증가(예비적 동기)

라인, 도표, 그래프,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화폐에 대한 공급

화폐에 대한 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는 것으로 가정

* 가계나 은행의 행태에 따라 화폐창출에 의한 통화승수가 변화할 수도 있으나 통화승수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임
* 이는 화폐공급곡선이 수직임을 의미

텍스트, 라인, 도표,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화폐시장의 균형 및 변화

화폐시장의 균형은 화폐수요와 화폐공급이 일치할 때 달성

* 이때 균형이자율 과 균형화폐량 수준이 결정
* 균형이자율 = 화폐의 가격(혹은 화폐보유의 기회비용)

중앙은행이 통화(화폐) 공급량을 변화시키려면 화폐시장 균형은 변화

* 지급준비율 인하, 재할인율 인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국채 매입 => 화폐공급 증가 => 균형이자율 하락

라인, 텍스트, 도표, 그래프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통화정책의 효과

통화정책의 국극적 효과는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파악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

*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이자율 하락에 따라 저축감소(소비 증가), 투자 증가 => 총수요증가
* 총산출량 증가, 물가 상승
* 증가하는 총수요 항목의 변화만 있을 뿐이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동일한 결과

라인, 도표, 그래프, 경사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문제점: 유동성 함정

통화정책도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시차의 문제 등이 발생

* 통화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므로 재정정책에 비해 시차의 문제가 덜 심각한 것은 사실

그러나 통화정책은 유동성 함정이라는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음

* 유동성 함정: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커서 통화공급량이 변화하더라도 이자율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이 경우 확정적 통화정책은 이자율을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소비와 트자 등 총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라인, 도표, 그래프, 텍스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통화정책의 문제점: 유동성 함정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동성 함정은 높은 수준의 이자율보다는 낮은 수준의 이자율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이자율이 이미 0%에 가까운 경우(일본, 미국,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확정적 통화정책 => 이자율 하락 => 소비 및 투자 증가라는 경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음
* 주요 선진국들은 중앙은행의 발권력 (화폐를 찍어 내는 능력)을 동원하여 직접적으로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수행하기도 하였음

라인, 도표, 그래프, 평행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제 15 주차: 개방경제**

1 재화와 자본의 국제적 흐름

개방경제와 국제수지

개방경제: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맺는 국민경제

*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을 통한 경제적 관계: 무역(수출과 수입)
* 자본의 이동을 통한 경제적 관계: 국제투자(외국인의 국내투자, 내국인의 해외투자)

일정기간 동안 개방경제의 대외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수취와 지급의 흐름을 측정한 것을 국제 수지라 함

* 국제수지는 크게 경산수지,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등의 항목으로 구분
* 무역에 의한 경제적 관계는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제투자에 의한 자본의 이동은 자본금융계정의 대부분을 차지

참고: 국제수지표

경상수지

1. 상품수지: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
2. 서비스주지: 서비스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
3. 본원소득수지: 급료 및 임금수지, 배당금 및 이자 등 투자소득 수지
4. 이전소득수지: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 이전거래 내역

자본수지

1. 자본이전: 자산 소유권 무상 이전, 채권자에 의한 채무면제
2. 비생산/비금융자산: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금융계정

1. 직접투자: 경영권 확보를 통한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투자
2. 증권투자: 주식 및 채권
3. 파생상품투자: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
4. 기타 금융투자: 장단기 대출 및 차입, 현금 및 예금 등
5. 준비자산 증감: 거래적 요인에 의한 외환보유액의 변화

순수출과 순자본유출

순수출 (NX: net export) = 수출액 – 수입액

* 수출액(수입액): 수출(수입)을 통한 자금의 수취액(지급액)
* 이를 무역수지라고 부르기도 함
* 텍스트, 폰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순수출 혹은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의 대부분을 차지

* 수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순수출이 발생하여 무역수지가 흑자를 나타낼 경우 일반적으로 경상수지도 흑자
* 따라서 순수출의 발생, 무역수지 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

순수출과 순자본유출

순자본유출(NCO: net capital outflow) = 내국인의 해외자산 취득액 - 외국인의 국내자산 취득액

* 직접투자(FDI) 및 간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 등의 형태
* 순자본유출> 0이면 순자분유출 (net capital outflow)이 일어난 것임 (내국인의 해외자산 취득액 > 외국인의 국내자산 취득액)
* 순자본유출 < 0이면 순자분유업 (net capital inflow)이 일어난 것임 (내국인의 해외자산 취득액 < 외국인의 국내자산 취득액)

순자본유출(유입)은 자본금융계정의 대부분을 차지

* 순자본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금융계정의 값은 앙(+)의 값을 가지게 됨
* 그러나 국가경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본이 밖으로 빠져 나간 것이므로 이 경우 자본금융계정 적자가 발생하였다고 말함

순수출과 순자본유출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언제나 순수출(NX) = 순자본유출(NCO)

* 순수출이 100억달러이면 순자본유출도 100억달러
* 순수출이 100억달러: 경상수치 흑자규모가 100억달러 순자본유출이 100억달러: 자분금융계정 적자규모가 100억달러
* 경상수지 흑자 규모 = 자본금융계정 적자 규모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언제나 순수출(NX) = 순자본유출(NCO)

* 한국기업 A가 미국에 100억 달러를 수출하였다고 가정

1. 순수출 측면
   1. 수출액만 증가하였으므로 순수출은 100억 달러 증가
2. 순자본유출 측면
   1. 한국기업 A의 선택
      1. 100억 달러 현공 보유
      2. 100억 달러 어치의 미국 채원이나 소 매입 => 한국입장에서는 내국인이 해외금융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한국의 순자본유출은 100억 달러 증가
   2. 한국기업의 A의 또 다른 선택은 100억 달러를 국내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1. 그러나 100억 달러를 새로 가지게 된 국내은행은 기업 A와 똑 같은 선택의 문제에 직면
      2. 이 경우에도 한국의 순자본유출은 100억달러 증가

저축, 투자 및 국제거래

국제거래는 저축 및 투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짐

텍스트, 폰트, 스크린샷, 번호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외환시장과 환율

외환시장: 외국의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화의 가격을 환율이라 함
* 원화와 미국 달러화가 교환되는 시자을 원-달러 시장이라 하고 이때 원화와 미국달러화 간의 교환비율을 대미달러 환율이라 함
* 대미달러 환율이 1000원이라는 것은 원-달러 시장에서 1달러 당 1000원의 원화가 교환된다는 것을 의미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두 국가의 화폐가 교환되는 장소이므로 두 국가경제의 여건과 상황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

* 환율의 변화는 대외거래를 하는 수출기업 및 수입기업들의 수익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시경제변수 중의 하나

환율변동과 순수출

환율변동의 의미

* 환율사승: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하락’함을 의미 /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함을 의미
* 환율하락: 달러화 대비 원화의 가치가 ‘상승’함을 의미 / 원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함을 의미

환율변동과 순수출

환율은 순수출과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임

환율상승을 가정

1. 수출측면
   1. 수출품은 해외시장에서 경쟁함에 유의
   2. 1000원짜리 수출품의 달러표시 가격은 1$에서 .5$로 하락
   3. 수출품의 해외시장 가격경쟁령이 강화 되고 수출품 수요량 증가
   4. 수출품의 수요증가가 충분히 크다면 달러표시 수출액 증가
2. 수입측면
   1. 수입품은 국내시장에서 경쟁함에 유의
   2. 1$짜리 수입품의 원화표시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
   3. 수입품의 국내시장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품의 수요량 감소
   4. 수입품의 수요감소가 충분하다면 원화 표시 수입액은 감소하고 환율상승으로 인해 달러표시 수입액도 감수

* 환율상승에 따라 순수출 증가(수출액 증가, 수입액 감소)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외화에 대한 수요

* 해외로부터 상품을 수입하거나 해외자산을 구매할 때 발생
* 환율상승 => 원화가치의 하락 => 수입품과 해외자산의 원화표시 가격 상승 => 수입품과 해외자산의 수요 감소 => 외화에 대한 수요 감소
* 따라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곡선은 우히향

외화에 대한 공급

* 해외에 상품을 수출 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자산을 구매할 때 발생
* 환율상승 => 달러가치의 상승 => 수출품